



#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柳常新

編輯人：尹錫文

-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記念 特輯 -

(住所) : 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우) 156-808, (電話) : 02-823-1091, 810-6792, (FAX) : 02-823-1092, E-Mail : airfa04@hanmir.com

## 空士總同窓會旗 移讓하다

敬愛하는 總同窓會 會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指導鞭撻과 參與에 힘입어 지난 일년간 總同窓會長職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總同窓會가 추구하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했으나 처음 計劃한 만큼 滿足스럽게 이루지 못한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편, 會員間의 親睦 圖謀와 母校 및 母軍의 發展을 위하여 微力하나마 努力한 것을 크게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第1期士官 同窓會會員들은 6·25 戰爭 중인 1951년 任官하신 후 목숨을 걸고 敵의 砲火속에서 自由民主國家의 하늘을 지키는 勇士로 參戰하셨고,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校訓을 몸소 實踐하셨습니다. 금년은 그때 젊은 士官들이 卒業 및 任官 50週年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어서 總同窓會 명으로 祝賀드리고 기념하는 행사를 母校 空軍士官學校와 空軍 第19戰團飛行團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先輩님들께 다시 한번 敬意를 표하며 祝賀를 드리고, 이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 母校와 母軍에 感謝드리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感謝를 드립니다. 國民들에게 國土防衛의 중요성을 弘報하고 現役 軍人 및 다음 世代를 이어갈 士官生徒들의 士氣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에는 매년 三軍士官學校 體育大會가 서울運動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國軍行事を 위하여 總同窓會會員들은 各 期別 그리고 總同窓會 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母校와 母軍을 위한 여러 會員들의 계속적인 後援은 祖國과 하늘을 지키는 役軍들에게 큰 힘



會長 柳 常 新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이 될 것입니다. 21世紀는 IT產業의 發展과 이 產業의 利用이 보편화되는 時代입니다. 그 동안 우리 會員들 중에서 同好인들이 모여 空士同門會 홈페이지를 開設하여 會員 상호간에 意見을 交換하고 인터넷상의 同窓會 役割을 수행해 왔습니다. 동호인 모임의 홈페이지를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참여해 온 會員들의 獻身的인 努力으로 총동창회는 空士總同窓會 홈페이지(www.kafapride.org)를 開設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의 체계 및 운영 등에 아직 未盡한 부분이 있으나 계속 發展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總同窓會活動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會員들께서 總同窓會 活動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財政確保를 위한 平生會費 납부운동에 적극 呼應해 주셨습니다. 특히, 일부 會員들은 卒業期別로 平生會費를 全員이 納付해 주셨습니다. 회원들께서 納付하신 平生會費는 元金과 그 果實이 모두 安全하게 銀行에 예치되어 總同窓會 活動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先輩를 恭敬하고 後輩를 사랑하며 相扶相助하는 따뜻한 마음을 모든 會員들이 오래오래 간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第8次年度 會期 동안 좋은 의견을 많이 開陳하여 주시고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여러 회원님들에게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특히 이번 會期 동안 獻身的으로 奉仕해 주시고 財政的으로

支援해 주신 第8期士官 동창회원들에게 感謝드립니다. 第9次年度는 姜敏秀 신임 總同窓會會長을 中心으로 한 有能하신 任員들이 總同窓會를 크게 發展시킬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大韓民國 空軍과 空軍士官學校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하며, 總同窓會會員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이 健康하시고 和睦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일년간의 聲援에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2001年 6月 15日

## 8次年度 定期總會 開催

지난 6월 15일 18시 용산에 있는 웨딩홀하니 대홀에서 본회 8次年度 定期總會가 開催되었다.

윤석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회장인사, 보라매회장(윤자중 공사1기)의 격려사가 있었다.

홍영규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사무총장의 8次年度 총회 운영보고에 이어 심의의결 안건인 ① 8次年度 결산(안), ② 회칙 개선 및 보완(안), ③ 9次年度 임원 개선(안)이 결의되었다.

결의에 따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맞은 1기사관들이 원로로 추대되었으며, 추대문인, 즉 지난 50년간 정회원으로로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향후에도 본회 발전에 기여할 바가 기대되어 원로에 추대한다는 것이며, 원로회원은 제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나 공적인 의무사항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개설에

공로가 많은 40기 고대석 회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회칙 개선 및 보완의 주요 요지는 조성된 기금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기금에 대한 안전 장치를 공고히 하였으며, 각 기별 회장, 부회장 및 총무를 본회의 당연직 임원 및 이사로 하고 임원회비란 명목으로 납부되던 연회비를 기별로 납부케 하여 운영의 간결을 기하도록 한 점이다.

9次年度 본회를 운영하게 된 회장단 및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일년간 기대되는 바가 크다.

- 다 음 -

회 장 : 강민수(30대 공사교장)  
부 회 장 : 김상태, 한광희  
감 사 : 이기봉, 정원호  
사무총장 : 이재을  
후원 9기사관 일동

회의를 마치고 II부 만찬 및 간담시간 내내 화기에애하여 공사총동창회 앞날을 밝게 했다.

雁 風 來 竹 面  
過 長 空



遊 拂 塵 除 垢  
天 戲 海



1기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 열병 분열에 앞선 생도지휘본부

## 존경하는 1기사관 선배님(식사)

사관학교장 주 창 성

오늘, 신록의 계절 5월, 싱그러운 자연과 눈부시게 찬란한 햇살아래 공군사관학교 제1기사관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1기사관 선배님들의 임관 50주년을 충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존경하는 1기사관 선배님 여러분!

선배님들께서 공군과 조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면, 불과 경비행기 20대로 시작한 공군이 신예전투기 5000대 이상을 보유한 세계 속의 막강 공군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공군을 창설하고 키워온 1기사관을 비롯한 공군의 대 선배님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우리 공군이 독립하기 4달 전인 1949년 6월 10일, 김포에 위치한 항공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불과 1년만에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을 맞게 되었고, 그 후 전쟁 중에는 대구, 모슬포, 진해 등지로 학교를 이동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시고 1951년 8월 5일, 여든세 분이 졸업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공군 소위로 임관하심과 동시에 대부분 전투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선배님들은 1952년 2월의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등 한국 공군의 주요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시면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셨으며, 불멸의 "빨간 마후리" 신화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공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당시, 전투조종사로 참전하신 1기사관 선배님 중 임택순, 장창갑, 김현일, 그리고 고광수 선배님께서는 불꽃같은 투혼으로 용전분투하시다가 조국 하늘의 품에서 장렬히 산화하셨으며, 특히 출격임무 수행 중, 愛機가

피란되자 적전으로 돌격하여 스물 넷의 꽃다운 나이에 장렬히 산화하신故 임택순 선배님께서는, 모교 출신 최초의 전사자로 이곳 성무대에 등상으로 우뚝 서서 하늘에 살고, 하늘에 죽는 숭고한 보라매의 길을 저희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휴전 후, 선배님들께서는 잡시의 실 틈도 없이 공군력 건설에 전력투구하시어, 오늘날의 막강 공군의 위용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하시고, 은퇴하신 뒤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심은 물론, 공군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참 군인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존경하는 1기사관 선배님 여러분!

저희 공군사관학교는 선배님들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 일류 사관학교로의 발전을 비전으로 내걸고 21세기 항공우주시대 선도할 국가와 군의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공군, 그리고 공군사관학교가 있기까지 그 특정한 터전과 근원을 마련해 주신 1기사관 선배님들의 그간의 빛나는 업적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후배들은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숭고한 업적을 이어받아 공군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1기사관 선배님들의 뜻깊은 임관 5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짧은 일정이지만 모교에서의 시간을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선배님들의 만수무강하심과 가내 평안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관생도의 분열을 받는 1기선배들

먼저 가신 임택순 동기의 동상 앞에서의 1기선배들





사관생도들의 열병을 받는 1기 회장단

### 또 하나의 뜻깊은 역사의 날(축사)

尊敬하는 제1기士官先輩님들의  
卒業 및 任官 50週年을 진심으로  
祝賀드리며, 이 경사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空軍士官學校 주창성  
校長님과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空士總同窓會 관련 先輩님들께 진  
심으로 敬啟를 표하는 바입니다.

6·25戰爭으로 인하여 祖國이 累  
卵의 危機에 處해 있을 때 목숨을  
바쳐 自由民主國家를 守護하고 전  
역하신 후에는 우리나라의 指導層  
人士로서 人生의 金字塔를 이룩하  
신 先輩님들의 任官 및 卒業 50週  
年이야말로 어느 行事와 비교할 수  
없는 뜻깊은 行事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空軍士官學  
校의 빛나는 歷史 속에서 또 하나  
의 뜻깊은 歷史를 이룩하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空軍士官學校를 처음 入門한 제1  
기士官으로부터 금년도 入學한 제  
53기士官生徒가 한자리에 모인 한  
마당으로써 先輩님들의 업적을 기  
리며 感謝의 禮를 드리고 우리 空  
軍士官學校의 무궁한 發展을 다짐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先輩님들께서는 戰爭의 砲火 속  
에서 목숨을 바쳐 祖國의 하늘을 지  
켰고, 戰後 荊棘의 길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航空宇宙분야에서 世界 頂  
上水準에 이르는 오늘의 空軍으로  
發展시키셨으며, 社會에 進出하신  
후 元老人士로서 社會의 指導者 役  
割을 성실히 遂行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先輩님들의 赫赫하신 貢  
獻으로 인하여 空軍士官學校의 名  
譽는 만천하에 크게 알려졌고 卒業  
生들의 自負心은 매우 高潮되어 있  
습니다.

또한 祖國의 하늘은 내가 지킨다  
는 愛國表情과 奉公의 精神, 難局을  
克服하는 睿智, 母校와 後輩를 사랑  
하고 指導하는 愛着, 未來를 豫測하  
고 對備하는 先見之明등 先輩님들

의 발자취는 空軍士官學校 卒業生  
은 물론이거니와 空軍制服을 體驗  
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國民들  
에게 깊은 感銘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0년에 걸친 先輩님들의 業  
績과 앞으로의 活動은 모든 星武人  
의 마음속에 길이 간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社會의 發展  
에 크게 寄與해 주시고 後進들에게  
좋은 龜鑑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靦靦하게 서있는  
士官生徒 諸官들은 높은 기상과 웅  
대한 抱負를 가지고 교육 및 훈련  
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며,  
이곳 星武臺에서 배우고 익혀서, 훌륭  
하신 선배님 못지않게, 祖國의 天  
하를 지키는 役軍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훌륭하  
신 先輩님들이 살아오신 지난 50년  
은 士官生徒 諸官들에게 산 敎訓  
으로 남을 것입니다. 空軍士官學校의  
후예들이 국가의 干城으로서 祖國  
의 領空을 守護하고 宇宙로 향하는  
未來 우리 空軍의 任務을 수행하는  
主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1기 先輩님들의 卒  
業 및 任官 50週年을 祝賀드리며  
이 행사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支  
援해 주신 이역수 空軍參謀總長님  
과 주창성 空軍士官學校 校長님께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제1기  
先輩님들과 先輩님들의 家庭에 健  
康과 幸福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  
으로 祈願하며, 또한 空軍士官學校의  
무궁한 發展과 總同窓會 會員 여러  
분과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신 여  
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  
운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2001年 5月 17日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會長 柳 常 新



사관생도의 분열을 받는 1기선배들





1기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1기 선배님들

## 벌써 졸업 및 임관 50주년이 되어(답사)

1기 사관회장 김 영 환

금일 우리 공군사관학교에서 우리들 공사 제1기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베풀어 주시는 사관학교 교장 주창성 장군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휘하 지휘관 참모 여러분, 그리고 사관생도 및 학교 전장병이 축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동기를 대신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공사총동창회의 회장 유상신 동문과 임원 여러분께서 금번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들이 임관한 지 50여년이 되어서 이 기념식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장께서 식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고미우신 찬사와 공사총동창회 회장께서 축사에서 하여 주신 축하의 말씀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우리들 지난날의 업적이 말씀하신 찬사에 비하여 합당치 못한 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좋은 말씀에 힘입어 지나간 과거를 표현한다면, 우리들은 임관한 그날부터 공사 1기 출신 정규사관이라는 독특한 칭호를 어깨에 걸머지고 우리 공군과 모교에 대한 책임과 기대가 막중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나름대로 남달리 많은바 임무수행에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50년 동안 군 복무시절 또한 퇴역 후 사회기관에서도 "나는 공군사관학교 출신 정규사관"이라는 것을 언제 어느 때나 모든 일에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도 앞으로 그리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우리들에게 들

려주시는 찬사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근원은,

▲ 우선 우리들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군의 정규사관이 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을 하여 주시었고,

▲ 군 복무기간 중에도  
- 삼사님들의 지도관달과,  
- 전우와 후배들의 격려와 후원,  
- 그리고 우리가 지휘관 참모 근무시절 임무를 완수하도록 자기의 신명을 바쳐가며 분투 노력하여준 부하 장병들,

이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깊이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애석하게도 순국 산화하신 동기생과 전우들의 영혼이 우리들을 가호하시었다고 믿으면서 그분들 영령에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현금 우리 공군에서는 새천년 새시대에 대비하여 항공우주군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0년 2030년대에 21세기 항공우주군의 주역을 담당하는 오늘의 사관생도들에게 고도의 인성교육을 겸비하는 정규사관을 육성함과 더불어 세계 일류의 사관학교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장님과 전장병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관생도 여러분도 새시대 새역사를 향하는 공군사관생도로서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대성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70대 노병이기는 하나 여러분이 정성껏 들려주시는 찬사와 위안에 보답하기 위하여 남은 여생 미력하나마 우리 공군과 모교 공군사관학교를 위하여 힘껏 공헌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1기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 식수 구상나무



● 생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1기 선배들

# “공군사관학교 제1기 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 행사”

◆ 2001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공군사관학교 1기 사관 임관 및 졸업을 기념하는 행사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관으로 있었다.

◆ 17일 아침 보라매 회관에서 07시 30분에 출발한 버스는 10시에 공군사관학교에 도착하였다.

공군사관학교 학교본부에 도착하자, 1기생 가가 군악 연주에 맞춰서 들려오는 가운데 1기 사관은 버스에서 내렸다.

“피끓는 젊은이의 공사 1기생, 희망의 젓가슴에 물결 춤추며, 김포의 하늘에 굳게 자랐네, 이내 갈 길 저기 하늘 날이 새면 나르리라, 꿈결에도 하늘을 날아다니며, 소리쳐 외치던 용사의 길” “영원의 길, 용사의 길”

◆ 사관학교 교장 주창성 중장과 참모들의 영접을 받으며 회의실로 안내되어 사관학교의 현황을 들었고, 이어 사관 생도들의 열병과 분열을 받았다. 참으로 감회 깊은 열병과 분열이었다.

◆ 이어서 공중에서는 공군 Air Show팀의 축하비행이 있어 더욱 1기 사관을 기쁘게 하였다.

◆ 교수부 실험실과 女 생도들의 내무반, 예절실, 미용실 등을 견학하면서 다시 한번 발전된 사관학교의 모습을 보고 1기 사관들은 기뻐하였다.

◆ 12시 30분 생도 식당에서 생도들과 같이 앉아서 중식을 한 순간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 김영환 1기 회장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인사하듯이, 50년 후에는 100기 생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사관 생도들(50기, 51기, 53기, 54기)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함께 참여한 여러 기수 회장단은 감회가 깊었다.

◆ 생도들과의 중식 시간은 너무



비행단에서 기념촬영

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게 많건만 생도들의 일과시간 관계로 아쉽게도 끝나야 했다.

◆ 임택순 대위 동상에 헌화하고 그의 명복을 비는 목념을 올렸다.  
◆ 그 후 공군 박물관 견학으로 사관학교에서의 기념 행사를 끝내고 19비행단으로 이동하였다.

◆ 19비행단장 이정석 준장의 영접을 받으면서 비행단에 도착한 1기 사관 25명은 보다 청단을 걷는 시설을 견학하고 5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놀라운 발전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비행단에서의 일정은 비행단의 계획에 의해서 현대화된 시설, 무장전시와 KF-16의 스틸넘치는 성능비행을 견학하고, 장교 식당에서 오리 백숙과 메기 찜으로 저녁 만찬을 대접받았다. 그리고 수안보로 이동하였다.

◆ 수안보 삼록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19시 30분이었다. 여기서 온천욕을 하면서 호텔에서의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 18일에는 08시 호텔 조식으로 식사를 하고, 청풍 문화단지를 견학하였다.

그리고 왕건 활열영장을 견학하고, 충추뱀을 관광 유람선으로 관광하였다.

주식은 왕 대나무 통이 밥그릇인 왕 대나무 밥으로 식사를 함으로써 먹는 맛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였다.

14시에 충추호를 떠나 서울 총동창회에 17시 30분에 도착하였다.

♥ 1기 사관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때는 없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50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과 그중에서도 개척자인 1기 사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오신 선배님들, 그 50년간의 긴 여정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영광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기 선배님들은 잘 이겨내시고 1기라는 모범의 길을 잘 걸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기사관 여러 선배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겠다. 비록 몇몇 가지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을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겠다”  
-벤자민 프랭클린-

1기 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행사를 따라 전 과정을 지켜본 저는 위에 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첫머리에 있는 글이 생각났다. 아마도 1기 선배님들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걸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리라.



#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

정해영(공사1기)

계절의 여왕인 5월(17~18일)의 하늘 아래 "1기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진 일은 매우 감동적이다. 신록의 연병장에는 눈부신 제복차림의 50~53기생도 800여 명이 우리 노병일행을 따듯이 맞아주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때 참석 동기생은 고작 25명(국내 39명)이었는데 이만한 14명은 여러 가지 형편상 한 사람도 못하고 전사자 4명을 포함한 순직 또는 사망자가 30명에 이르고 보니 진실로 감개무량한 자리였다.

한편 보라매 회장인 윤자중 전 총장과 1기생 회장인 김영환 (예) 소장이 1기생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함축 돋보이게 창출해 내고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먼저 주참석 교장(소장 : 16기)은 축사에서 1기생의 6·25참전 공훈을 찬양하고 공군발전의 초석이 된 발자취를 기리며 전 생도를 비롯한 공사 장병일동이 이를 교훈 삼아 오늘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자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이번 행사를 처음 착안하여 준비하고 사실상 주관해 나간 총동창회장 유상신 박사(교수출신 : 공사 8기)은 축사에서 선후배가 자주 만나 모교인 공사교의 발전과 정예공군 육성에 필수조건인 인재양성에 힘을 실어주는 기폭제가 되리라 믿고 1기 선배에게 한마음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였다.

답사에 나선 김영환 회장은 뜻깊은 오늘의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공군담국과 유상신 총동창회장, 그리고 주참석 교장에게 감사드리고 생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병이지만 미력하나마 여러 후배들과 하늘로 우주로 뻗어나갈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남은 여생을 진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같이 제창한 교가에서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라는 소절이 새삼스럽게 그 영원성을 실증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생각에 남다른 감회에 젖으며 작사자인 최용덕 3대 교장님의 선구자다운 예지와 애국심을 높이 사고싶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우리 애국가에서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라는 구절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공사출신들의 영원한 요람이자 본향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군사관학교라고 노래하고 있으니 말이다.

생도들에 의한 열병 분열과 A-37 6대에 의한 공중분열에 이은 곡예비행을 통해 실로 막강한 후배들로 주역을 이룬 정예공군에 대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4.5m 크기의 구상나무 기념식수를 하고 앞으로 매년 이어나갈 영원성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서 생도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김영환 회장은 "앞으로 50년 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때에는 더욱 큰 영광이 있으리라"는 덕담을 하여 환호를 받은 대목도 같은 맥락이었다.

오찬 후 공군박물관에 들르기 전 동기생인 "입택순 대위 동상" 앞에 현화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고인의 추모생을 기렸다. 실은 전사자만 4명(+장참감·김현일·고광수)이고 순직이 4명(차진준·김달취·함필선·김영민)인데 "같은 전사자라도 먼저 가야 대접을 제대로 받는다."라고 이명취 장군이 충언하였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의 우리 동시기 25명이 졸업·임관 50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한 건 강과 영예야말로 먼저 희생한 동기들 희생 위에서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박물관을 돌아본 후 오후에는 총주비행장에 둘러 제19전비단장인 이정성 준장(공사 22기)의 영접을 받았다. 현황보고에 이은 시범비행에서는 KF-16 복좌기에 의한 각종 묘기를 연출하여 그 우수성을 자랑하였다. 지난날 MIG-19기를 안전하게 유도하여 강제 착륙시킨 실력을 실감할 수 있어서 흐뭇했다. 착륙한 조종사의 보고로 각종 급기동시에 8.5G나 걸렸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 믿음직스러웠다.

무장전시에서는 각종 유도탄이 선보였는데 개중에는 한 방에 9억여 만원짜리도 끼어 있어서 노병들을 놀라게 하였다. 내실있는 만한 후에는 수안보에서 일박하면서 운전수로 피로를 즐기고 폭 쉬었다.

다음날은 청명한 날씨 속에 청풍 나루에서 관광선을 타고 그림 같은 청산사이를 누비며 정답을 나누면

서 대자연의 풍치를 만끽하였다.

일행 중에는 2~4기에서 한 명씩 축하 결 참여하여 예우에 신경을 써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고영근 장군(2기)이 귀함버스에서 잠시 시간 해설한 덕담은 매우 인상적이다. 다른 아닌 "아파트 난방비 75% 절감방법"이라는 저서 내용 설명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 출판사에서조차 그 제목이 이상천의하게 비쳤다는 대목이 공감하기에 충분했다.

오죽 안타까웠으면 우리 국민들의 남비벽과 보건상의 무지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바로잡고 깨우치려는 일념으로 일상생활의 개혁을 위해 사비로 단행분까지 발행한 발상에 놀란 것이다.

그 줄거리인즉, 실내온도를 보건상 최저온도(18~21도, 취침시 : 14도)로 유지하게 되면 연료의 절약은 물론이고 공기의 청정도 기하면서 약간 냉한 느낌의 온돌관리(고환부위에 특효) 하나로 보약이 불필요해지고 감기 같은 잔병에 걸리지 않고 최상의 체력(정력감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

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었다.

이처럼 실질적인 국민생활개혁에 나섬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경제도 살리고 국민보건도 지키려는 노력이야말로 곧 애국이며 애국의 표현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동문의 자람으로 떠받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제기한 "우리들 영혼의 기지"로 다시 돌아가 우리 1기생의 여생을 장식할 언날의 지표들 같이 모색해 본 발언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적어 보기로 한다.

요컨대 오늘의 이 뜻깊은 1기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생도들과 전 후배들에게 우리 1기생의 경륜과 정신적인 유산을 "영혼의 기지"라는 공홍본모에서 찾아 불법과 부정과 부패의 주범이요 음란과 퇴폐와 패역의 원천인 죄를 멀리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유함으로써 거침없이 하늘로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기치를 선명하게 펼쳐서 높이 들기를 간곡히 제창합니다.

어느새 우리를 태운 공군버스는 분당을 오른쪽에 끼고 달리고 있었다. 대부분 양재역에서 내려서 저마다의 복음자리(아파트)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아파트 난방비 75% 절감방법"을 실천에 옮길 뜻을 아울러 다짐하였다.

## 동방의 햇살이 되시기를

조영철(공사6기)

반세기 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의롭고 힘든 개척자의 길을 걸어 공군의 터전을 닦으신 83명의 공사기 선배님들의 졸업과 임관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홍인의 청년이 이제 고희의 나이로 열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반백의 머리는 인생의 경륜을 말해 주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패기 넘치던 젊은 시절의 즐겁고 희망찬 추억으로 넘쳐 있으리라 믿습니다. 젊음을 하늘에 바치고 평생을 공군과 조국을 위해 사셨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인민군의 남침으로 조국산하를 피로 물들이고 오백이십만명의 동포 목숨을 앗아갈 때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고 공사1기로 들어와 학교를 김포에서 성남중학교로, 제수도 모슬포로, 진해로 옮겨다니며 땀을 흘리지 않고 오직 배우고 익히면서 장교의 소양과 지도자의 자질을 키워왔던 반굴의 투지와

정신이 오늘의 공군을 있게 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북항공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워 조국의 하늘을 지켰기에 오늘의 조국 하늘이 파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온갖 정열을 쏟은 선배님들의 잠부다운 모습에 아깝지 않은 박수를 보내면서 그 장하신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 지구촌 정부의 소재지를 '아놀드' 박사는 동양 철학이 있는 나라, 사계가 뚜렷한 나라, 다짐과 화합의 나라,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 역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 지구촌 정부의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본다면 동방의 밝은 빛이 되라는 타골의 시(詩)처럼 선배님들은 미래의 햇살이 되어 주시고, 남은 여생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1기사관 임관 50주년 행사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

祝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6期會長 曹永哲

# 半百의 役軍들이여!

# 임택순 공군대위 동상 앞에 서서

곽 영 달(공사7기)

정 해 영(공사1기)

空士 1期 先輩님들의 任官 半百週年을 衷心으로 祝賀드리며, 今年 53期 後輩들까지는 물론, 앞으로 永遠한 空士 歷史와 傳統의 主人公으로 커다란 足跡을 남기신 당신들의 이번 記念行事를 다시 한번 敬賀하는 바입니다.

오늘처럼 안락한 보금자리도 아닌, 김포 비행장에서 육군 항공사관 학교라는 낯설은 이름으로 97명이 탄생하여 배짱도 떨어지기 전에 6·25 전란으로 인하여 水原으로 - 城南으로 - 大邱로 - 모슬포로 - 鎭海 등지로, 流浪 敎育場을 옮겨 가며, 83명의 主人公이 되신

先輩님들의 50週年의 感懷를 어찌 筆舌로 다 表現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L-4/L-5 시대에서 F-16/F-X 시대를 보시면서, 또 총각 Pilot 시대에서 처녀 Pilot 시대를 보시면서, 50년간 연연히 이어온 空士의 전통을 보시면서, 다가올 航空 宇宙時代의 主役들의 튼튼한 울타리로서 先輩님들의 役割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의 입관 50주년을 기하여 더욱 健康하셔서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icip기를 祈願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도 하늘이 좋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기 조종사 치림으로 늙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53년 3월 6일의 모습 그대로 여태껏 여기(공사교)에 서있는가 임택순 동기!

그날의 공격목표인 고성 351고지 상공에서 진인한 지상군 지원작전에서 거미줄 치듯 쓰아 올리는 구 소련식 대공포화의 화염을 뚫고 F-51 전폭기로 적전선을 박살내고 동해로 이탈중 불의(不意)의 피탄 이라니! 애기와 같이 적진에 꽃힌 화염(火焰) 애석하여라 장렬한 공중산화... 11회 출격의 첫 전사

당수로 기계제조로 Mr Korea의 알통을 자랑하던 그대 경기고의 금지와 공사1기의 명예를 걸고 강릉 양철집의 유혹도 모른 23세 수총각의 지조를 담아 순결을 바친 애국충정의 제물이여!



祝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7期會長 郭泳達

## 詩가 있는 命峰書舍

(2000편의 詩稿를 내면서)

박 응 진(공사4기)

1. 마포구 합정동 2층에 있는 菴舍 시도 때도 없이 불을 밝히는 命峰 허공을 날아가다 떨어진 詩種子의 씨앗을 주으려고 흙추다가 쓰러진 原稿더미에 안경을 쓰고 있는 나의 얼굴 그림이 이제는 그만해도 됐다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다 본다

나도 모르게 2000편의 詩稿 25집의 편집을 기다리는 감격스러움이 아직도 갈 길은 멀었는데 다가왔다

랄진하도록 밤을 낮처럼 새우던 날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려고 절치부심(切齒腐心)의지를 불태우던 날들 그 많은 세월의 시간밖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멧침했던가

홀연하게 배어난 핏더미 속에서 눈을 뚫었으니

진한 피땀새로 얼룩진 꿈속에서 자지러지던 푸른 詩나무와 푸른 잎을 가꾸기 위하여 달력의 숫자와 시간의 나이테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누구는 돈도 밥도 되지 않는 그 많은 詩를 써서 무엇하느냐고 정신병자처럼 댁안시 당할 때마다 눈물겨운 지나간 날들을 헤아릴 수가 없다

변칙한 철학의 방에서 삼경이 지나도록 피를 말리던 일들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외롭고 쓸쓸한 독백만을 하지 않았던가

2. 詩人은 한번의 詩를 쓸 때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2000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

3. 나는 詩를 쓰고 詩題를 정한다 사관학교 4년 동안 참회록을 쓰고 취침점호 시간에 익힌 다오치고 고함치는 소리 하나로도 초혼적인 영상이 다가와

內面的인 詩世界를 불러들일 수 있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졌다

이제는 詩 쓰는 일이 즐겁고 편안하니 아름다운 감격을 스스로 만끽한다

팬층으로 다듬어진 모국어로 돌보다 단단한 머리갓에는 피보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느니 아무리 두들겨도 피멍이 들지 않는 우리는 북소리 떨리고 있으니

어린시절 어려웠던 환경과 삼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역경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느니

4. 어머니가 주신 아름다운 詩液이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고운 글들이 되어 삼의 이치를 터득하게 하는 한장 한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정신 문화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詩의 노동자로 거듭나고자 한다

詩를 많이 썼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더욱 웃음을 머미고 앞만 보고 가려고 한다

詩를 읊는 삼의 가치관은 따뜻한 이웃과 함께하며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함께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승리대로 욕심 없이 사는 것이다

詩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으나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詩魂이다

民草 같은 잔디가 뜨거운 햇빛 속에 가물어지면 옥마른 글귀 하나가 단비가 되어 내리느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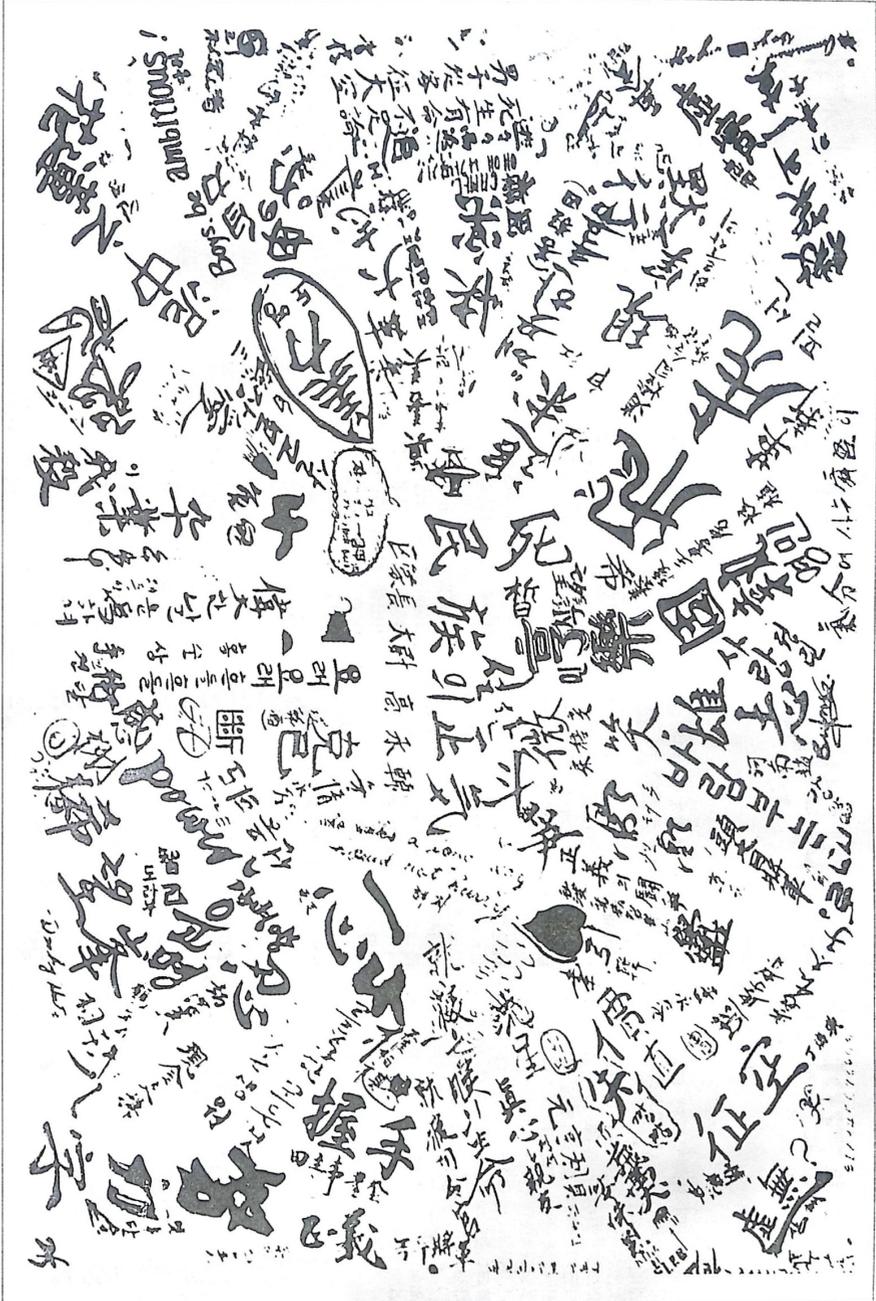
5. 나는 단독자의 수도승이 되어 여기찬 고행을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

어머니로부터 출발한 예수의 근본은 모두가 民族意識이나 民族統緒일진대 이로부터 솟아나는 국가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들 詩人들이 있지 않느냐

언제나 새 地平에 도도하게 흐르는 民族史觀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나라의 정신과 혼백을 이어 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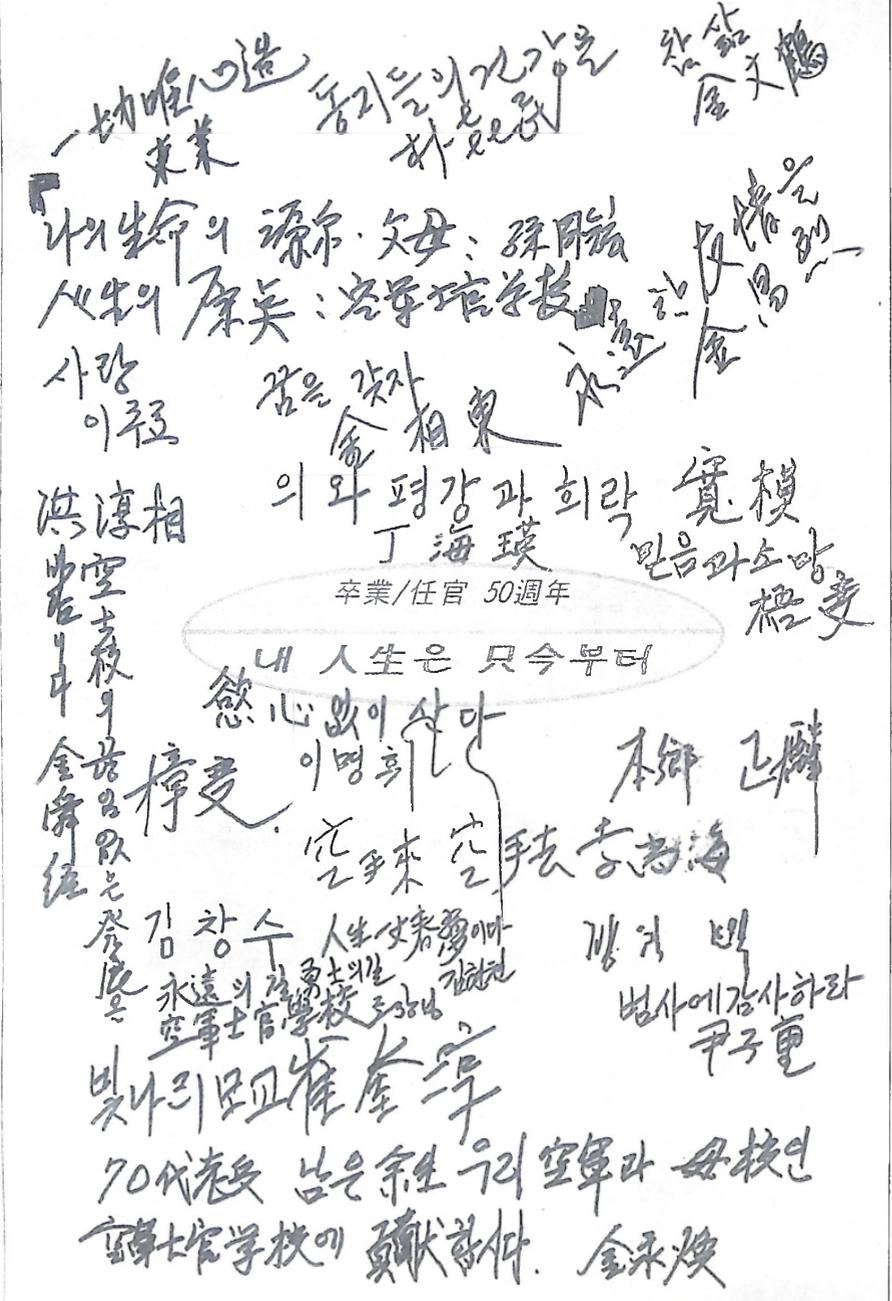
어둠과 괴로웠던 지난날의 황무지에서 운동주, 이상화, 이육사, 한용운 등 많은 석각자들이 발길처럼 번지는 救國 詩魂을 세워주시니 그 의지를 발사르고 순극한 정신을 본받아야만 한다

이 민족의 수천만 통일의 꽃도 피워야 하고 한국문단이 걸어온 발자국 소리소리마다 詩文學의 맑은 글귀가 얼마나 장대하고 빛나는 위업인가를 詩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만 한다



50년 전인 1951년 1기(1세대)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식(1951년)의 1기(1세대)들의 SignX

50년이 지난 2001년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식(2001년)의 1기(1세대)들의 SignX



50년 전인 1951년 1기(1세대)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식(1951년)의 1기(1세대)들의 SignX

50년이 지난 2001년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식(2001년)의 1기(1세대)들의 SignX

# 7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까지

김 상 록(공사8기)

1기 사관의 공군 사관학교 졸업 50주년과 공군소위로 임관 50주년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은 일본 제국의 군대의 잔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군대로의 길로 가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길을 슬기롭게 이겨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배님입니다.

오늘 졸업과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신 선배님들의 삶은 사관 출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한평생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후배들은 1기라는 명예와 사관 출신이라는 명예를 지켜오신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축하를 드리면서 1기 사관 졸업 및 임관 60주년 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70주년, 80주년 기념 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선배님들과 선배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내 사랑 오로라

조 승 래(공사8기)

나만 쫓아가고 싶어지는 것일까?라면서 내 사랑 오로라 라는 시를 편집실에 보내왔다. 시쓴이의 마음이 참 오로라인 듯하여 시와 함께 게재했다.

- 편집실 -

본인은 시인이 아니며, 시를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직업상 북극에 가까운 지진 상공을 야간에 비행하게 될 기회가 많아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너무 자주 만나보게 되었으며, 세월이 쌓이니까, 소위 "시흥"이 생겨났다. 그래서 느낀대로 시의 흉내를 내어 보았습니다. 이전것도 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을 밤 12시에 이륙하여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국제공항 상공을 경유하여 서쪽에 새벽에 내리는데, 날씨가 추운 겨울임수록(밤이 깊으니까) 그 문밖에는 반사광이 부족하고, 보습

받은 반사광이 너무 밝아서 안되고, 초승달이 서쪽하늘에 있을 때, 동녘의 노을이 밝아오기 전까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일 때에 오로라가 제일 멋지게 나타납니다. 앵커리지에 가까워지면 동녘하늘이 밝아지면서 오로라는 도망쳐 버립니다.

군에서 20년, 대한항공에서 20여년을 넘기면서 오늘까지 하늘에서 맛 봤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감정이 무뎠던 우리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그렇게도 자주 「그 비행」을 하면서도 그것이 오로라인 줄을, 또는 겨울임수록(밤이 깊으니까) 그 문밖에는 반사광이 부족하고, 보습

나 오늘밤 그델향해  
날아간다.

그대 나를 기다리며 거기서 밤새는줄 내가 알거늘...

우리의 만남은 황홀했었지

너울 너울 치마폭 주름살 내얼굴에 스칠 때  
너의 눈빛 아스라히 어슴프레하게 빛났었지  
살랑살랑 흔들는 너의 아مان 팔 내 목을 감쌀 때  
너의 컷볼 발그스름 붉은 듯 만 듯 동녘에 반사되었지

너의 뒤에 거느린 그 어두움 그대로 있게 해다오  
너의 귀여운 액세서리 조각달 원뿔에 달아다오  
오 - 이 밤아 새지마라  
우리의 만남 끝내기 싫어라

거기 있다가도 살포시 사라져가는 너의 허리춤  
나는 너를 쫓아 황급히 눈을 돌린다  
사뿐 사뿐 어데선지 보이는 듯 너의 발걸음  
파란 소리인가 하얀 소리인가 붉은스름한 소리인가

내 그 소리 보고 싶어 눈을 떼지못한다  
이 밤이 지새도록 북극까지라도  
너 있는 곳을 향해  
야간비행이 성공권을 뚫는다

그대여  
휘몰아쳐라  
사라져라  
다시 나왔다가 도망쳐라  
천천히 천천히 도망쳐라  
주름치마가 돈다  
빙빙 돌아서 돌지않고 도로 퍼진다  
쭈굴 쭈굴 오무라든다  
옆으로 옆으로 넓게 넓게 오무라든다  
높이 높이 퍼져라 속속 뻗어라

밝음이 우리를 떼어 놓으려는구나  
파랑아 너 없어지느냐  
빨강아 너도 없어지려느냐  
마하의 음속으로 비행운이 길어진다

작별의 손짓인가  
거기 있어 - 어  
가지마 - 아  
내 금방 갈게 - 예



# 나의 큰 정원과 월드컵 축구대회

강 영 진(공사8기)

산을 좋아하는 모임들이 있다. 아마도 각 기생회의 등산회가 있을 것이다.

공사 8기회에도 쫄山班이 있다. 나는 등산반의 일원이다.

월요일마다 10시 30분이면 약속된 장소에서 모여 정우신 회장을 따라 산으로 산으로 간다.

그런데 모임 때마다 예외 없이 10시 25분에는 다들 모인다.

5분 전에 말이다.

전역하고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 사회에 몰들어, 약속시간에 늦는 습관이 있을 법도 한데 말이다.

졸업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사관학교에 교유가 무섭게 생각된다.

그러나 얼마나 믿음을 주는 교유인가?

그러기에 사회인들과 만날 때보다 훨씬 더 기쁘게 만난다.

산을 오를 때마다 이 산은 나의 정원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정원은 정원을 소유한 사람이 늘 거닐고, 가끔은 산책하고 노니는 곳이라고 할 때, 내가 오르는 내가 자주 가는 산은 가끔은 산책하고 노니는 나의 정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정원은 세상에서 제일 크다.

나의 큰 정원에서 시간을 생각해 본다.

루이 18세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것은 왕이 배울 수 있는 친절이다."고 하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는 것을 생활신조 중 하나로 삼았다.

넬슨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심오분 일찍 준비를 마친다. 그렇게 한 것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하였다."

"절대 늦지 말라."는 글씨가 "일본 늦는 것보다는 세 시간 이른

것이 낫다."라는 것보다 훨씬 단도 직입적이다.

조지 워싱턴은 지적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시계가 늦게 간다고 변명을 하는 비서에게 "시계를 새로 사야겠구먼, 아니면 내가 새로운 비서를 들이든지."라고 일침을 놓았다고 한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과 훌륭한 매너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깊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제 시간엔 일을 끝내는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을 더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인품이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월드컵 축구 대회를 생각해 본다.

내년에는 월드컵 축구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개최된다.

외국에서 많은 선수와 기자, 그리고 응원단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 중에서 무형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 한국인이라는 이기에 믿을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신념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의 인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은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라고 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까?

여기에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한국인들은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친절한국민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 空士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웨딩타운 하니  
보령궁전웨딩문화원

代表 李 求 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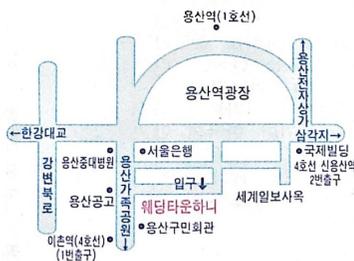
- 서울에서 가장 넓고 차별화된 예식홀 -

# 웨딩타운 하니



## 궁전(예비역, 현역) 특별 우대 할인혜택

- 1만 2,000평 대지 위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900대 동시 무료 주차시설
- 단독 건물별 넓고 여유로운 예식홀(400석/250석)
- 2,0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대·소 연회장



♥ 회갑연, 돌, 동창회, 향우회, 각종 모임 환영

## 예약문의

790-0053

<http://www.honey.co.kr/>

● 지하철 4호선(신용신역 국제빌딩 출구)-도보 5분거리 - 순환버스 운행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 개설

Wep Master 고 태 석(공사40기)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새로운 전년이 도래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제 인터넷이 어느덧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사 동창회에서 도 그간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동창회의 홈페이지를 공식화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하여 새로운 홈페이지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는 www.kafapride.org로서 공사 40기인 본인이 사설로 운영하던 것을 공사총동창회와 연계하여 공식화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동창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회칙, 임원진, 고문단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였으며, 새소식란에는 공지사항을 비롯하여 Biz Club, 자료실, 홍보실, 모

임실 등이 운영됩니다.

특히 전역동문 상호간의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확보 및 Upgrade하여 기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기수별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각 기수별 게시판과 자기소개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역동문이 아닌 타 방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손님사랑방에는 지난 추억 속의 동료를 찾을 수 있도록 추억찾기란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동문간의 삶의 모습을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의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총동창회의 공식 홈페이지로 본연의 모습을 갖춘 이 사이트는 향후 공사 동문간의 상호상호간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성장교 단독비행성공, 전원 초등비행훈련 수료

최초 여성전투조종사 탄생을 향한 첫 관문 통과 6월부터 제3훈련비행단에서 제트훈련기로 중등비행훈련 시작

'02-2차반 여성장교 전원이 단독비행을 성공하고 초등비행훈련을 수료하였다.

지난 1월 8일(월)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훈련에 입과했던 7명의 공사출신 여성 장교가 초등비행훈련을 수료함으로써,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간의 우려를 한꺼번에 불식시키는 동시에 최초의 여성전투조종사 탄생을 위한 전망을 한층 더 밝게 했다.

초등비행훈련은 전투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종기량을 연마하는 과정으로서, 항공기에 대한 이해와 비행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T-41 초등훈련기를 이용하여 지상조작과 이·착륙, 공중조작 등을 익히게 된다.

특히, 초등비행의 마지막 부분인 단독비행은 그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교관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항공기를

이륙시켜 주어진 과제를 실행하고 착륙하는 비행으로써, 비로소 기본훈련기(T-41) 조종을 완전히 소화하고 초등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함을 뜻한다.

초등비행을 무사히 수료한 편보라(片보라, 22) 소위는 "나 홀로 하늘을 날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남은 비행교육을 끝까지 이수하여 반드시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초등비행을 무사히 수료한 '02-2차 조종훈련학생들은 5월 12일(토) 수료식을 갖고 기초생활훈련과 중등비행훈련 과정에서 탑승할 항공기에 대한 기본정보교육을 받은 뒤 6월 28일(목)부터 제3훈련비행단에서 제트항공기를 이용한 중등비행훈련을 받게 되며, '02-3차 조종훈련학생들은 5월 중순 초등비행훈련에 입과한다.



# 조국영공수호를 향한 힘찬 첫 날갯짓

조국의 하늘은 우리가 맡는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 '01-1차 고등비행 교육 수료식 가져



항공 우주시대를 맞아 조국의 하늘을 책임질 최첨단 전투조종사들이 고된 고등비행 훈련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실전에 배치되었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4월 26일 이억수(李億秀)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 참모, 관계 장병 및 수료생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비행 훈련과정을 이수한 조종학생들을 대상으로 '01-1차 고등비행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한 46명의 새내기 조종사들은 작년 고등비행 교육과정에 입과한 이래 약 8개월 동안 선배 교관들의 엄격한 지도아래 고난도의 비행교육을 받으며 각종 비행기술과 비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대공, 공대지 전술 등 다양한 실기를 익히면서 조종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 전투능력을 연마해 왔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초등, 중등 비행훈련을 마치고 이번에 최종 관문인 고등훈련을 통과하기까지 약 2년여에 걸친 긴 훈련과정을 마친 이들 정예 조종사들은 이 날 조종사의 상징인 조

종증장과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음으로써 진정한 정예 조종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배속부대에서 지속적인 실전훈련을 받으면서 조국 영공수호에 앞장서게 된다.

이억수 공군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도의 전투기량과 강인한 정신력을 연마하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인성효 중위, 김윤규 중위, 채춘식 중위(이상 공사47기) 등 세명이 비행기량과 학술 성적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영예의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하였다.

공군 조종사 양성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고도의 정보전과 과학적인 양상을 띠게 될 21C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훈련과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최정예 조종사들을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생명나눔심선의  
www.lisa.or.kr

장기기증!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명나눔심선의 02)734-8050  
www.lisa.or.kr

# 1기와 11기

김 원 규(공사11기)

먼저 1기 선배님들의 공사 졸업·입관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기 선배님과 11기사관 하면 너무나 인상적인 일들이 많고 아마도 제일 관계가 깊은 사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8년 찬바람 불던 어느 겨울날, 여의도 공군병원 퀸셋에서 공사 입시 면접고사를 치르던 11기생들이 공군에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1기사관 김중보 선배님이었습니다.

가족 공군잡화에 종종 계급장도 선명하게 중앙에 앉아 계시던 면접시험관, 빛나던 눈빛과 차분하고 미소 띤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머리 속에 생생합니다.

공사가 진해에서 대방동으로 옮겨온 후, 서울 1기생이란 애칭을 들으며 11기 사관생도로 입교한 이래 감수성이 예민한 생도생활 4년 동안에 가장 많은 가르침과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 바로 다섯분의 1기 사관생도 전대장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기생들은 공사 입교부터 졸업까지 생도 전대장님은 1기 선배님의 자리인 줄로만 알았으니 이 어찌 대단한 인연이 아

니겠습니까!

김중보, 천영성, 김영민, 이명휘, 백용삼 선배님들의 열성적인 가르침 속에 생도로서의 자긍심, 장교의 지표로서의 명예심, 공군의 장래 주역이라는 정규사관으로서의 주인 의식 그리고 개인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국가관의 기틀이 이 생도생활 기간 중에 1기 선배님들의 훈도를 받으며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공사를 졸업한 후 각각 맡은바 전문특기 분야에서 근무할 때에도 여러 선배 장교님들 중에서도 특히 1기 선배님들의 따뜻한 지도아래 성실껏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공사 사충동창회의 후원 속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철모르고 부족하던 저희 11기생들도 어느덧 이순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 60대 초반이 되었지만 공사 입교시부터 아직까지도 1기 선배님들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와 존경의 염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1기 선배님의 졸업·입관 50주년을 감축드리며 부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巨木과 같은 老兵 1期 先輩님

14기생 일동

尊敬하는 空軍士官學校 1期 선배님들의 졸업 및 입관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50년 前, 한국 독립은 아직 틀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공군에 말할 수 없이 큰 挑戰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누가 나라를 위하여 갈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나선 젊은이들이 있었으니, 조국 하늘의 守護者, 바로 空士 1期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 후 공군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앞장서서 오늘의 공군을 이루는데 주춧돌이 되신 '巨木과

같은 老兵'들의 입관 半世紀는 공군의 歷史에 또 하나의 뚜렷한 里程碑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군을 책임지는 參謀總長 職을 맡고 있는 저희 14기생 일동은 막중한 責任感과 使命感을 갖고,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傳統을 더욱 빛내면서, 우리 공군이 21세기 국가안보의 主役으로서,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飛翔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시고, 최고 웃어른으로서 변함 없이 指導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관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오며, 선배님 모두의 가정에 幸福과 함께, 항상 健康하시기를 祈願합니다.

**祝**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14期生 一同

## 半百讚歌

이 영 순(공사19기)

보라매 요람의 始發點이요,  
"0"에서 "1"로 이어온  
황무지에 나무 한 그루 심듯  
半百歷史와 風餐露宿하며  
오직 불라는 崇高한 意志 하나로  
礎石의 礎전을 이루었나이다.

宇宙로 向하는 發展과  
보라매의 억센 날갯짓을 위하여  
삼의 많은 몫을 소진하심은  
불사조의 정열과 신념이  
집결되고 응축되어  
莫強空軍으로 성장되었나이다.

고귀한 열과 작품은  
세월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더 값지고 빛나는 보물처럼  
刻印된 魂과 業績들은  
긴 세월 쌓아올린 金字塔이 되어  
빛날처럼 라오르고 있습니다.

긴-歷史와 더불어  
길이 빛날 그 이름  
空士 1期生!  
영원 무궁하리이다.

**祝**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11期會長 金元圭

## 50개 성상의 공군주역들이시어

박 성 국(공사17기)

공군사관학교 1기 선배님들의 입관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관 1기!

오늘 찬란한 50개 성상의 공군을 있게 한 주역으로서 풍정동화와 같은 국운을 살리고자 그토록 어려운 때에 젊은 꿈과 열정을 국가에 바치셨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힘겹게 오늘을 지켜온, 이 시대를 살아온 진정한 우국충정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보라매 동지에는 어느덧 50번째 매추리들이 알을 깨는 아픔을 딛고 나와 힘찬 비상을 꿈꾸며 작은 날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후배들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께서 이루어내신 그 영광을 더욱 빛낼 것이며, 보다 원숙한 공군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관 1기 선배님들의 입관 50주년을 맞이하여 회망과 꿈이 가득한 미래 선진 공군을 약속드립니다.

**祝**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17期會長 박성국

**祝**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19期生 一同

# 공사 19기 졸업 및 임관 30주년 기념식 거행(5월 19일)

싱그러운 5월, 지난 5월 19일 공사 19기생들이 30년 만에 모교를 찾았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 30주년이였다.

놀랍도록 눈부시게 달라진 학교시설, 교육환경에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후배 생도들의 열병분열,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으며, 생도들에게는 전전날 1기사관들의 졸업/임관 50주년 축하행사가 거국적으로 있는 데다 연이은 선배들과의 인상깊은 만남이 됐다.



## 그간 성원에 감사합니다

### ▲ 찬 조

기수	성 명	금 액
4기	· 서동열	20만원
5기	· 이병직	10만원
8기	· 유상신 총동창회 회장	1,000만원
	· 이양호	300만원
	· 서진태, 조현효(200만원씩)	400만원
	· 100만원씩 10명 강재학, 김덕영, 김도식, 김삼록, 백상희, 우홍기, 윤석문, 임형백, 전순배, 최흥범	1,000만원
	· 50만원씩 9명 김원술, 김종석, 문명기, 신제익, 오세덕, 이남규, 장정효, 정승채, 조승래	450만원
	· 30만원씩 7명 강기석, 오대기, 유창근, 윤대봉, 임승무, 임창수, 전석근	210만원
· 20만원씩 2명 김동철, 이상진	40만원	
· 10만원씩 10명 김두선, 김성규, 김성환, 송재선, 안영균, 이길주, 이병희, 정우신 남창희(고 남영찬 회원의 장남), 이승훈(고 이환희 회원의 장남)	100만원	
합 계		3,530만원

### ▲ 광고협찬

성명(기수)	회 사 명	금 액
허두기(7기)	Pratt & Whitney	200만원
백상희(8기)	(주)한도유동	30만원
최흥범(8기)	베네통산(주)	120만원
이구목	웨딩홀하니	200만원

### ▲ 1기사관 50주년 행사 찬조

성 명	회 사 명	금 액
홍순길	항공대학교 총장	50만원
유상신	총동창회장	50만원
조현효	총동창회 부회장	50만원
김도식	일야산업 사장	50만원
박용진	총동창회 4대회장	20만원
박용태	총동창회 5대회장	10만원

## ◇ 회비납입 안내 ◇

회원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기별/임원회비(회기별)

- 회기(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 1기~7기 : 기별 40만원 또는 임원부담
- 8기~28기 : 기별 60만원 또는 임원부담

찬조금/광고협조

- 회원이면 누구나

안 내

- 국민은행 : 285-01-0075-673(예금주 : 윤석문)
- 조흥은행 : 372-01-046167(예금주 : 전순우)

송금시 유의사항

- 입금시 기수, 성명, 납입구분(평생회비/기별/임원회비, 기타)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솔선하여 납부하고,

언제라도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지금 당장 납부하며,

이왕에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기꺼이 납부한다.

說 往 說 來

사무총장 윤 석 문(공사8기)

흔히들 세월을 유수(流水)와 같  
다거나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  
다라고 세월의 덧없음과 빠름을  
비유한다.

나는 또 한번 세월이 정말 빠르  
다는 것을 절감했다. 작년 이맘때  
타의반 자의반으로 사무총장직에  
때맡겨진 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  
만 같은데 벌써 일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말이다.

동기생인 L회원이 공군참모총장  
으로 재직시의 일이다. 꽤나 오래  
전일이다. 마침 동기생 송년 모임을  
공군회관에서 가졌을 때다. 사회  
를 맡은 Y총무가 우리 기생은 다른  
기생과 달리 총장이 두 명씩이나  
된다면서 은근히 우수성을 자랑  
하고 있을 때다. 갑자기 뒤편에서  
"아니야 돌이 아니야", "셋이야"라  
는 큰 소리가 나서 일제히 소리가  
는 쪽을 돌아다보며 박장대소를 한  
일이 있다. 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대구시 체육회의 사무총장이었던  
K회원이었으며, 춘회원인 K회원이  
전북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어쨌거나 총장이 셋인 것은 사실이  
어나나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 해  
의 송년 모임은 끝이났었다.

모두가 싫어하는 "그 자리"에  
때맡겨진 것은 타의(他意)요, 동기  
생의 명예와 동질(同質)의 모교  
동문인 선후배의 모임을 위한 리  
리인데 일년쯤이야 즐거 봉사할  
뜻할 것 있나 하는 자의(自意)로  
바쁜 가운데 일년이란 세월이 흘  
렀다.

그동안 많은 예비역 선배와 후  
배를 만났고, 소식이 없던 동기들  
을 끌어모으고, 모교인 공군사관학  
고는 물론 공군본부며 예하의 모군  
부대를 드나들면서 10년, 20년 이  
상의 후배를 만날 때는 마치 10년,  
20년은 더 젊어진 듯한 환상에 젖  
기도 했다.

부족한 원고를 모아 분기마다  
발간 배포한 총동창회보는 벅찬  
듯 바빴지만은 애써 만든 결실을  
받아보고는 미소가 절로 나왔다.  
배포할 때마다 동기들이 물려와  
지난날의 얘기를 꽃피우며 아라바  
이트를 하고 그 후 나누는 소주잔  
만으로도 총동창회의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겼다.

2000년도 삼군사관학교 체육대  
회를 끝내고 준비과정부터 3일간  
의 열전에 지친 임원과 선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총동창회의 이름으  
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 때 후

배들이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던 모  
습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총동창회와 모교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쉽다.

총동창회의 회장은 모교 교육진  
흥재단의 당연직 임원이 된다는가  
하면 상호 교류를 자주 가져, 상호  
간의 업무이해와 존재인식이 있어  
밀접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행스럽게도 임기 중 말은 1기  
선배님들의 졸업/입관 50주년 기  
념행사는 모교와 총동창회의 새로  
운 장을 연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  
을 기획하고 계획 진행했다.

100년 대계의 구상나무 단지화  
를 위한 구상나무를 심은 깊은 뜻  
이며, 행사 후는 기생의 이름으로  
작지만 큰 발전기금을 담산들이 못  
다한 기개를 후배들을 통해서 필수  
있도록 모교에 기탁하시는 깊은 뜻  
을 또 당연히 받아야 할 후배들의  
성의를 너무나 겸허하게 받으시고,  
천진스럽게까지 할 정도로 즐거워  
하는 모습들을 1박2일 일정으로 따  
라다니며 옆에서 지켜볼 때 선배님  
들이 정말 존경스러웠고, 개척선구  
자 한 집안의 장남 만행의 위대한  
참모도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다.

1기사관이 졸업/입관한 지 벌써  
50주년을 맞았으며 나이 또한 70  
중반을 접어들었고, 회원간의 부름  
이 적지않게 들려오니 우리 총동  
창회도 노령화에 들어서시나보다.

회원간의 친목도도 방법 또한  
애사 중심의 연구가 있어야겠다.  
임기 중 타계하신 선배님 후배님  
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특히나  
후배들의 상가를 찾아 문상할 때  
가슴아팠던게 생각난다.

8차년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운영과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니 시  
원섭섭하다. 미모만큼이나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하여 사무실 분위기를  
는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는 회원을  
친절히 맞으며 예비역이나 현역 회  
원간 원활유 노릇을 너무 잘하며  
귀염을 독차지했던 여 사무원 김민  
제 양(이제는 씨), 혜성처럼 나타  
나 쨍쨍매고 있는 회보의 편집/발  
간을 십사리 칭송을 받도록 도와준  
K동기, 무엇보다도 기죽지말고 총  
동창회나 잘 운영하라고 성원을 아  
끼지 않았던 공사 8기 동기생들,  
그런 동기들이 있게 한 동기들의  
부인들께 감사한다. 휴 휴날 총장  
이 아닌 사무총장 자리가 있다면  
그때는 경선이라도 하리라.

어 이, 대머리 곱게 늙어

김 국 장(공사7기)

얼마 전 가랑비가 내리던 날  
오후, 나는 모처럼 고향에 갔  
다가 삼경하던 참이었다. 고속  
도로 삼행선 안성지역, 버스차  
선으로 끼어 들던 승합차와 버  
스의 충돌을 시작으로 10여 대  
의 차량이 연쇄충돌사건을 내  
던 바로 그 시간에 나도 그  
부근을 달리고 있었다. 이 사  
고로 3개 차선 중 2개 차선은  
완전히 차단으로, 달려오던 차  
들이 하나의 통행 가능한 상태  
였다. 그러다 보니 3개 차선으  
로 달려오던 차량이 하나의 통  
행 가능한 차선으로 몰려들어서  
서로 먼저 가려고 끼어들다 보  
니 차가끼 뒤엎어져서 아무 차도  
못 가는 수라장을 만들고 만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 같은 선진국  
에서 보면 사전약속이나 한 것  
처럼 각 차선에서 한 대씩 나  
와 차례로 진입함으로써 원만  
하게 교통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는 서로 먼저 가려고 양보없이  
마구 끼어 들음으로써 교통대  
란을 일으키기 일쑤이니 한심  
하기 짝이 없다. 얼마를 기다리  
다 보니 드디어 나의 진입 차  
례가 왔다. 음탕 내 차가 진입  
할 차례요 여간인 데도 간길로  
달려온 차가 쯤쨍하게 차 머리를  
들이댄다. 나는 금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설 수밖에..... 새  
치기를 한 뺑간 차의 여인네는  
고개를 저쪽으로 돌린 채 그냥  
달아나고 만다. 미안하다고 손  
 한번 흔들어 줄 예의도, 예고도  
그녀에게는 없다. 그 순간에 또  
다른 차가 무리하게 진입을 시  
도하는게 아닌가! 나도 약간  
올라 이를 악물고 차 머리를  
디밀었다. 이쯤되면 저쪽에서  
양보하려니 했는데 그도 역시  
막무가내다. 화도 나고 오기도  
생겨 인상을 쓰며 진입을 계속  
했다니 아찔한 순간에 금브레이  
크를 밟고 선 그 40대 후반의  
운전자는 사대질을 하면서 "어  
이-대머리, 곱게 늙어!"라고 소  
리친다. "뭐야, 대머리라고 고  
약한 것",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욕  
설을 퍼붓는 운전자를 보면서  
분통이 터진다.

사실 나는 운전할 때 가능한  
한 양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이런 경우 또 양보를 하다  
보면 내 뒤차들이 클렉션을 울  
리며 사대질을 해올 판이니 계  
속 양보만 하고 있을 입장도  
못된다. 이 아비규환의 무질서  
속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빠져 나오고 나니 문득 몇 년  
전 모 대학에서 일어났던 교수  
와 학생간의 '주먹다짐 사건'  
이 머리를 스쳐간다. 학교 내의  
일반통행로에서 거꾸로 진입한  
학생 차와 제대로 진입한 교수  
차가 충돌에서 만났다. 교수가  
학생에게 한뫼 진입을 나무라  
며 차를 뒤로 빼도록 요구하자  
학생은 오히려 교수에게 배구  
(Back)를 하도록 주장, 결국

교수와 학생간에 주먹다짐이  
오가는 사태까지 번져 신문에  
오르내리는 등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던 사건 말이다.  
조금 전의 나의 경우도 만일 접  
촉사고라도 일으켰더라면, 그  
40대로부터 무슨 봉변을 당했  
을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  
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자식  
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학  
생이 선생의 면살을 잡으며 쫓  
은이가 연장자에게 손찌검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패륜의 사  
회다. 실령 부모나 선생, 또는  
연장자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원하다면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  
사람에게 욕을 하며 달려든다  
면 이 사회는 악육강식의 동물  
사회와 무엇이 다르랴..... 별  
평한 신사 숙녀들이 차만 물게  
되면 왜 무례한으로 변하게 되  
는 걸까? 자가움을 모르는 정도  
면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문  
화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  
계다. 그런데도 차 유리창 밖으  
로 가래침을 뱉고 담배꽂초를  
내던지며, 신호등이 고장난 교  
차로에서 서로 먼저 가려다 아무  
도 못 가는 아수라장을 만들  
고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러시  
아하(Rech Hour)에 충돌사고  
를 낸 당사자들이 뒤차 밀리는  
것은 아랑곳없이 대로상에서  
면살잡이를 하고 있는 꼴은 아  
마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  
는 불품 사나운 희극임에 들림  
없다.

또한 극단으로 치닫기만 하  
는 대립된 감정, 남에게는 비판  
적이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독선, 남이야 죽면 말년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이  
기주의 등 점점 살맛을 잃게  
하는 독소들은 어디서 오는 걸  
까? 이것은 아마 점점 더 각박  
해 가는 세대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  
아가는 데서 오는 병리현상이  
라는 생각이 든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조나단  
던(Joanathan Dunn)은 '인간은  
섬이 아니다(No man is Island)'  
라고 말할 바가 있다. 우리들  
인간은 바다 속의 외딴섬처럼  
혼자 존재할 수는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만  
이다. 더불어 살려면 남을 이해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마음  
의 여유는 지성인의 것이다. 건  
강한 사람의 것이다. 여유와 벗  
과 맛을 아는 사람은 쉽게 감  
정을 노출하지도, 자기 이익에  
급급하지도 않는다. 나란 급원  
점 모 대학에서 일어났던 교수  
와 학생간의 '주먹다짐 사건'  
은 마음의 여유, 그리하여 서  
로 따뜻하게 손잡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이 점점  
황폐해 가는 이 사회를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로 바로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  
며, 속악머리 없는 대머리(주변  
머리는 있음)의 변을 여기 적  
는다.



# 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유 상 신(공사8기)

## 1. 정전(停電)사태의 교훈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에서 2001년 1월 중순 어느 날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은 무왕좌왕하게 되었고 업무와 생활의 불편은 심각하였으며 경제적 손실은 많은 부분에서 지대하였다. 이 정전사태는 현재 지구상에서 최첨단 과학기술분야를 개발하는 국가이며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 인구 가장 크게 밀집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및 경제면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바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이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정전사태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경제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은 실리콘밸리와 같이 정보화 관련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발전소 건설은 거의 정무한 상태이며, 주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에 따라 전력공급회사의 전력대입가격은 자율화되어 있으나 매출가격은 주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전력공급회사가 도산 상태에 이르렀고, 전력공급회사와 전기발전회사간의 장기계약이 허가되어 있지 않음으로 전력은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넓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시설은 노후되었고, 최근 출생에 사용되는 천연가스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전원가 역시 급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30년 이상 가동되어 노후되었고 효율이 크게 낮은 상태에 있으며 화석류(化石類) 연료를 이용한 발전량을 보완하는 수력발전량이 최근 감소량 부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은 정보화시대 부흥하는 연구와 장비를 제조하는 하부조직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며 미국 내에서도 생명이 편리한 지역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불행한 사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긴급조치에 힘입어 40여 일 만에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최근 전기에너지의 최대수요가 더운 여름철에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면, 다가오는 여름철의 정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있다. 우리 나라의 수도권과 공업단지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지역과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도권 지역 또는 공업단지 지역에 정전사태가 발생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에너지문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에 입각한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인류가 지구상에서 계속 향상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2. 에너지원별 발전량(發電量)과 효율(效率)

에너지(energy)는 일을 하거나 열(熱)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동력(動力)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에너지는 주로 열, 열, 전기 에너지 등의 형태로 이용되며, 장거리 수송을 위해서 전기에너지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화석류 연료의 열에너지, 수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지열(地熱)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潮力)에너지 등이 전기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 이용된다.

산업화된 주요국가들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63.1%)이 다른 종류에 비하여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화석류 연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21.7%)이며 수력에너지의 비율(13.6%)은 크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수력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 알려진 지열, 태양열, 조력, 바이오매스(biomass) 등의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량은 아직 대단히 미미한 상태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은 연소(燃燒)장치에서 열을 발생하며,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핵반응에 의하여 열을 발생한다. 열 에너지의 발생장치, 열교환(熱交換)장치, 그리고 발전(發電)장치는 불가피하게 손실을 수반하게 되며 바람직하지 못한 공해를 유발하게 된다. 열교환장치와 발전장치의 효율은 에너지 변환과정에서 손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효율이 좋은 장치는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적은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효율은 에너지 원가의 절감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연소장치 또는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은 직접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와 전기를 발전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수송기계의 대부분은 발전된 열로 구동하는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엔진의 효율은 엔진의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며 효율이 좋은 엔진은 연료의 소모가 적고 동력의 일가를 내게 한다. 동력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효율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기에너지의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전기발전장치의 효율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연료의 연소효율은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의 단위 장치당 동력발전 규모는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발전된 대부분의 엔진들과 전기발전장치는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낙차(落差)를 이용하는 발전원은 낙차가 클수록 효율이 좋고 출력을 크게 할 수 있다. 한편 낙차는 지리적 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낙차를 높게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 지하에서 얻게 되는 지열(地熱)은 난방에 이용되거나 전기를 발

전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 중반에 풍력을 이용한 발전원은 1kw-hr당 1불이었는데 1996년 발전원은 1kw-hr당 5센트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약 2센트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효율을 향상시키면 발전원은 실용성 있는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의 파도와 해수면(海面) 낙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구 또한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태양열은 집열판(集熱板)을 사용하여 열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과 광전지(光電池)를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왔다. 열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 중 난방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건물 위나 건물 주위에 집열판으로 알려진 열교환기(熱交換器)를 설치하여 수집된 열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법이다. 집열장치를 잘 설계하고 비침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지방에서 겨울철에 동파(凍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와 결부시키면 대단히 유용한 난방장치가 될 수 있다. 넓은 면적에 대해 특수 집열판을 설치하고 수집된 태양열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수백 도씨 이상의 고열을 얻을 수 있다. 이 열을 이용하면 전기를 얻을 수 있다.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 지구의 대기권 밖에 대해 집열판을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얻고 발전된 전기를 지구상에 송전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 3. 에너지 변환장치와 환경(環境)

에너지의 이용과 에너지의 변환 과정은 손실과 유용한 에너지의 퇴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국 주위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어진 에너지를 냉난방에 이용하고 생산공정에 이용하거나 전기에너지를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의 손실과 더불어 많은 공해물질을 발생한다. 따라서 에너지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석탄과 석유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공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지표면을 많이 점유하고 퇴화 등 부정적인 면이 크지 않다. 천연가스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반하여 연료비가 고이기 때문에 전기에너지의 생산원가를 높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의 점전사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급격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은 에너지 밀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공기오염, 기후변화, 지표면의 퇴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

지 않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방사선 누출문제이다.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미국과 소련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불안심을 심어주었다.

공기오염과 기후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 사용량이 최소인해서 수질오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사능 문제가 없는 에너지원은 풍력, 태양열, 지열 등이다. 이들은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로서 매력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에너지 밀도가 대단히 낮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풍력과 태양전지 이용을 위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표면을 이용해야 하고 단위 발전장치당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은 공기오염이 거의 없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넓은 지표면을 점유해야 하며 많은 수량을 이용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류 에너지자원 매장량의 한계성은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 천혜의 자원을 태워서 열에너지로 만들고 동력장치를 구동하거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화석류 연료의 많은 부분은 인류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좋은 원자재로 이용될 수 있으며 고속 수송기계와 항공기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 그 유용성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석류 연료의 열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료를 연소시킨 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핵연료 역시 한정된 양만이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원자로 방식을 이용한다면 고수준(0.7%)만이 열 핵반응에 의해 열 에너지를 발생하고 많은 양의 핵연료는 사정되고 만다. 핵증식로(增殖爐)와 핵융합(融合)과 같은 기술이 더욱 빠르게 발달하여 핵연료가 안전하게 화석류 연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에너지자원이 되도록 기술을 개발시켜야 할 것이다.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조력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등은 의견상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로서 매력 있는 에너지원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 에너지원을 유용한 동력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에너지 변환 장치의 낮은 효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향상된 생활수준의 유지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대단히 크며 유용한 동력을 얻는데 요구되는 기술과 비용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사실만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심사숙고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祝**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韓國航空大學校 總長 洪淳吉

# 여행의 수확(收穫)

서울교대  
교수 박범수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내외로 살 것이냐는 문제로 부부간에 얘기가 오간 적이 있다. 집사람은 이미 자기 주변 사람들과 그 문제로 한바탕 논의를 끝낸 뒤였던 것 같다. 더러는 지금의 남편과 다시 살고 싶어 하더라면서, 자기는 결단코 나와는 다시 살지 않겠다고 하겠다고 한다. 나는 내심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집사람의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나는 당신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집사람은 눈을 허렇게 흘리고 집근처라는 뜻이 내 곁을 떠나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반찬은 좀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92년도 초에 나는 모스크바를 여행할 기회를 가졌다. 소련이 해체되어 러시아가 새로운 나라로 섰지만 철의 장막의 나라였기에 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일이었다. 여행단은 모두 20여 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대학의 교수가 나까지 네 사람이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분들인데 철의 장막이 다시 내려지기 전에 가 보자는 나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분들이다.

말형 격인 L교수는 체구는 자그마하지만 처신이 늘 의젓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그림자로 남는 분이다. 이상한 것은 파리의 거리에서 입맞추는 남녀가 제일 먼저 그분의 눈에 띄는 것이었다. 둘째는 왕년에 씨름으로 황소를 탄 경력의 한문 교수이신데 이분은 유독 여복이 많아서 여행 중 우연히 잠은 자리에도 늘 여자가 옆에 있어 화제가 되었다. 셋째는 내게 때문 친형같이, 때론 친구같이 가까운 분인데 간혹 매력있는 투정과 유머로 좌충을 사로잡는 분이다.

나는 막내로서 네 사람의 행사와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권한 많은 총무 역을 맡았다. 여행 중에 씨름꾼 교수의 생신을 맞았다. 모스크바의 무슨 중앙 호텔이었는데 텔레비전은 아예 고장되었고 목욕물도 미지근하여 불편을 바뉘면 할 뿐 결코 쾌적하지 못한 호텔이었다.

러시아의 음식이 부실하다고 들은 터라, 컵라면을 먹을 요량으로 우리는 물 끓이는 포트와 라면, 그리고 지팡이처럼 길쭉한 바게트빵을 썰어서 봉지 봉지에 준비해 왔다. 씨름꾼 교수의 생일 잔치는 고작 컵라면 한 그릇을 혼자 다 먹게 해 드리는 것이었다. 그 국물에 바게트빵을 적서 먹는 것이 별미였다. 생일 선물로는 소품 그림 한 점을 구입해 드렸으나 그분은 독자적인 컵라면을 더 흡족해 하였다. 오죽하면 세 번째의 O교수가 그림 같은 선물은 없어도 즐으니 자기 생일을 망쳐서 차려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그만쯤 라면의 맛은 별미였다.

여행 중에 느낀 점은 예상 밖으로 많았는데, 특히 네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들은 전에 없

던 일이었다. 늘 다정하게 지내던 네 사람이 상대방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크렘린 궁전에서 화재 때문에 깨졌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종을 구경하던 날 알바트 거리에서 우리는 두 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서울로 치자면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인데, 교회의 장식품(숨겨 놓고 팔았음)에서부터 누군가의 사진까지 붙어 있는 공산당원증, 장군의 것이었는지 한 칸, 레닌의 얼굴이 수놓인 각종 깃발을 포함하여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사람의 관심 대상이 각각 달라서 행보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씨름꾼 한문 교수는 당신의 형님용으로 털모자를 유념했던지 모자가 있는 곳이면 멈춰서 5분 이상 지체했고, O교수는 유독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콘(교회 관련 골동품)이나 그림 앞에서 발이 붙어 있었다. 나는 끈충이 들어있는 호박(보석)을 구경하면서 선물 빛쟁이들을 떠올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가 지체했던 것은 과녁치도 않고 다른 사람이 꾸물거린다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알바트 거리에서 물건을 산 것은 씨름꾼 교수가 먼저였다. 털모자를 17달러 주고 사서는 아예 머리에 쓰고 다녔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토끼털 모자를 13달러에 파는 곳도 있어서 우리는 같은 대학 교수들을 위한 공동 선물용으로 여러 개를 샀다. 그때부터 씨름꾼 교수는 4달러 더 주고 산 것과 다른 모자를 여러 모로 비교하기 시작하였다. 모스크바에서는 1달러로 지하철을 2000년 탈 수 있었으므로 4달러는 큰돈이었다. 이리저리 털을 쓸어 보기도 하고 양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17달러짜리가 좀 다르지 않느냐고 나한테 사뭇 사정 조로 물었다.

나는 둘 다 토끼털이지만 선생님은 "밍크하고 놀던 토끼의 털"이라고 말해서 버스 안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웃음 가운데지만 알바트 거리에서의 일과 함께 우리 각자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러시아 여행의 진수는 역시 쟈트 베체르부르크였다. 그 도시의 옛 이름은 레닌그라드인데 밤에 도착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아름다운 가로등 거리였다. 호텔이서 내리본 네와강, 강변으로 이어진 양쪽의 가로등 거리는 가장 인상깊은 것이었다. 아름드리 붉은 대리석 기둥의 이삭 성당, 도스토예프스키와 차이코프스키의 묘소, 그림 한 점 앞에 1분씩만 서 있어도 소장된 그림을 다 보려면 11년이 걸린다는 해르미타주(겨울 궁전) 박물관, 다양한 설계로 건설된 600개 이상의 교량으로 이어진 물의 도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이 도시는 제국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레닌의 동상과 K. G. B. 참설자 제르진스키(안내인은 죄를 진 새끼라며 혐오감을 표현했다) 동상 등 그 어떤 역사의 유물에도 가치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 파괴하지 않는다는 시민 의식이 수준 높게 보였다.

여행 중 두 번째 숙소인 베체르부르크 호텔은 모스크바의 중앙 호텔보다 고급이었고, 특히 전망이 좋았다. 네와강변에 위치하여 더욱 그러했다. 나는 시차 때문에 밤 2시나 3시경에 꼭 잠을 잤다. 모스크바에서도 잠을 깨어 눈은 커서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나 베체르부르크에서는 야경이 좋아서 잠 못 자는 나그네를 덜 억울하게 하였다. 한번 더 보고 싶은 야경이다.

룸메이트인 L교수는 빈틈없는 분위기를 여행 중에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내게 대한 배려도 각별하여 호텔 밤을 잡으면 먼저 당신이 나쁜 침대를 쓰려고 서둘렀다. 밤에 들어가면 열른 위치가 덜 좋은 침대를 골라 담요를 뒤엎거나 당신 물건으로 어질러 놓아 점유율을 표시하였다. 아침에는 내가 화장실을 마음놓고 쓰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역력하였다.

나는 그런 배려를 알아서 누릴 만큼 배짱이 두둑하지 못하였다. 나도 다음 번 숙박지에서는 나쁜 침대를 선점하기 위하여 서두르게 되었고 사사건건 L교수의 배려를 위하여 신경 썼다. 잠 못 든 심야에 고양이 걸음도 그런 일 중의 하나였다.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이런 일은 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다. 훌륭한 사람하고 사는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일에 철저하고 심지가 깊은 분과 같이 지내는 것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임을 깨달았다.

열방에서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룸메이트를 바꿔보자는 제안이 은밀하게 나왔다. 일생이 아니고 단지 12일간의 여행기간에도 우리는 같은 것을 겪고 있었다. 방 바꾸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씨름꾼 교수가 제안자가 누구냐고 따지는 바람에 숨어 있는 제안자들은 그냥 참고 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약탈의 갈등은 있었으나 즐거움이 더 많았던 여행은 결국 우리들을 더 좋은 관계로 밀착시켜 주었다.

작은 거인 L교수와 12일간의 동거 끝에 나는 새삼스럽게 내 안식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안식구가 지금처럼 덜 완벽하고 덜 예뻐서 오히려 나를 편안케 하기 때문이다. 서까래가 대들보와 같이 함께 살지 않고 그냥 서까래끼리 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더니 좀 부족하고 못 미치는 것도 아름답게 여겨졌다.



# 바보스런 微笑

## (고모와 조카딸)

윤 석 문(공사8기)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가. 절친한 친구의 실화라면서 들려주었으니 친구의 친구 얘기인 셈이다.

그(친구의 친구)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 대로부터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졌으며, 그의 아버지가 연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가사(농사)를 꾸려나갔다.

여러 형제인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원활할리 없었다. 남자들은 중학교 중퇴 또는 국졸 후 읍내 상화 중업원이 되거나 조그만 공장의 직공일을 하였고 딸들은 가사를 도맡아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영민하고 영특하여 아버지는 물론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각별한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지만 삼급학교 진학 문제라든지 학업의 연속 문제는 어쩔 수 없었으며, 이 점을 특히 그의 할아버지가 가슴아파하셨다 한다.

진학문제로 방잠을 설치던 그가 무작정 상경하여 독학이라도 해보겠다는 결심을 얘기하였을 때, 아버지는 물론 할아버지가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한다.

상경한 그가 오래지 않아 어떤 의인을 만났고 그분의 소개로 도심 속 한 사찰의 주지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을 꿰뚫어 본 주지스님의 후원으로 특약이 아닌 정규수업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 D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었다고 한다.

졸업 후 병역을 필했고, 그 후 사발을 하고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속가의 나이 지천명(知天命)이 넘었고, 속가의 나이 불혹(不惑)을 넘어서야 고향 생각이 났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에 대한 불효는 꼭 속죄하고 참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향집을 찾았다.

큰형님이 벌써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있었고, 갖 물을 지냈을까 말까했던 장조카가 큰형의 나이가 되어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장조카의 안내를 받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선영(先塋)을 찾아 밧고 그간의 불효를 빌고 돌아와 집마당에 막 들어섰을 때다.

"엄마 나 왔어 -" 소리치며 삼십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네가 대문을 들어서더니 큰 마루에 앉아서 식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큰형수에게로 달려가 서로 손을 잡고 나누는 모녀간의 대화다.

"시부모 모시고 살림하느라 힘들지 -" 하니 "어디 그것 뿐이우, 시조모까지 계시잖우" 한다. "박서방은 네 속 숙이지 않우 -" 하니 "말도마우, 큰애가 읍내 학교에 다니기 힘들니 분가해서 살게 해 달라고 여쭙보라 해도 X X 같은 위인이 말한번 못하잖아 - 요즘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 한다. 모녀간의 대화를 소리없이 듣고 있던 큰형이 계면책스레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나 바보스런을 수가 없더라. 그제서야 생각난 듯 "아니 박서

방과 애들은..." 하니 "아마 동구 앞에 다 왔을거야"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다.

마당가에서 놀이하던 아이들 형제더러 고모부 마중하라 장조카가 이르니 우루루 물러나간다. 뒤를

그제야 할머니 앞에 앉아 두손을 꼭 잡고 많어진 흰머리카락, 늘어난 주름살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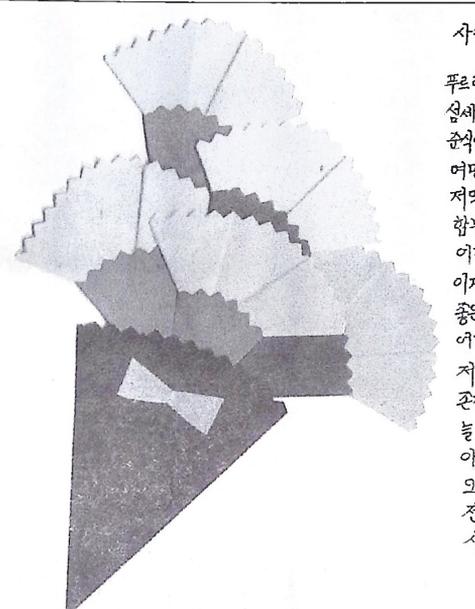
할머니께서 "시부모 잘 모시우? 시조모님도 건강하시우?" 하니 "내가 누집달이우, 걱정마세요" 한다. 막내딸의 일거수 일투족, 모녀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께서는는 흐뭇하고 흡족하여 빙그레 웃으신다.

계면책어 하며 바보스레 웃던 형의 웃음과 웅 하는 헛기침과 함께 빙그레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미소가 너무나도 대조가 되더라. 그의 얘기를 듣고는 친구는 작금의 세태(世態)를 걱정하는 대화

닌 고아들, 과외도 임시공부보다 안쓰럽다는 이유로 과외보호만 받는 임시준비생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걱정 겹 푸념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다. 모두가 밖으로만 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자기 같은 구도자(求道者)도 도(道)는 내면(內面)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거늘 대부분이 밖에서만 구하려 든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가정주부도 가정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중심으로 가내의 질서가 잡히고 화합의 장이 된다는 것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사랑하는 아버지께**

푸르러지는 나무처럼 우리아이도 점점 자라납니다.  
 섬세해지 수. 뽕뽕해진 눈빛, 흔들림없는 목가슴...  
 순박이를 키워면서 가슴속에서 생겼는 애정을 논합니다.  
 여명시도 아버지께 그친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요?  
 저 또한 부모님께 그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겠지요?  
 한꾸로 해서는 안 되는 소중함 사랑이라고 되어 있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 아이에게 베풀려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님처럼요.  
 저희에게 늘 좋은 본모범을 보여 주셔서 가슴깊이  
 존경합니다 아버지.  
 늘 생각해 주시고 늘 배려해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레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전 정말 아버님이 참 좋아요.  
 사랑해요 아버지.

2001. 5. 4.  
 - 명심 올림 -

따라 대문을 나섰다. 동구 앞 물물을 따라 길게 미루나무가 늘어선 독 길을 한 사내가 어린애를 등에 업고 큰손은 손을 잡고 다른 한

를 그와 나눌 수밖에 없었다 한다. 아침일찍 직장에 나가 갖은 스트레스를 받고는 주눅이 들어 발 늦게에 집에 들어오는 가정들, 맞

옛 서현의 말씀이 만고의 진리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가 맡은 이른바 아빠는 IQ를, 엄마는 EQ를, 그리고 할아버지는 MQ/CQ라는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 마치 3개의 다리가 튼튼해야 하는 삼발이처럼三者一體가 되어야 집안이 서고, 사회가 안정이 되며, 국가가 바로 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말이였다 한다.

나는 그 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성(自省)해 본다.

먼훗날 내 삶을 뒤돌아보며 나는 어떤 미소를 지을 것인가 생각한다.

바보스런 미소는 짓지 않으리라.

**아빠는 IQ를, 엄마는 EQ를, 그리고 할아버지는 MQ/CQ를,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손에는 가방을 들고 힘겨워하며 걸어온다.

애들이 쫓아가 힘겨워하는 큰 아이를 업고, 손에 든 가방을 받아 든다.

막내 고모 한분이 계신다. 마침 할아버지 생신날이어서 친척들이 모이기로 되어있던 날이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소리치며 흰 모시두루마기에 백구두, 한손에 부채를 든 한량형의 고모부가 마당에 들어섰다. 반가히 맞으며 할머니께서 "이 사람이 예미하고 애들은 -" 하자 "동구 앞에 다 왔을 집니다" 한다.

뛰어나가 그가 막내 고모를 맞았다. 등에는 작은아이, 한손에는 큰아이, 머리에는 짐보따리를 이고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하다.

등에 업은 애를 할머니가 받아 안자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대충 개어 한구석에 놓은 고모부의 흰두루마기를 정갈하게 헛대에 걸고는

**공군사랑카드 갖기 운동에 참여합시다**



모교 교육진흥재단에서는 국민카드사, 외환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공군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양질의 후배 육성을 위한 기금마련의 일환이니 다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 연락처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오피스 ☎ 043-290-5916~7  
 공사총동창회 사무실 ☎ 02-823-1091

※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전역자 조회정보 시스템 확대운영 안내

공군본부에서는 전역자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한 전역자와 현역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00년 10월부터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에 "전역자 조회"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당시에는 주소 및 연락처 확인이 가능한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하여 운영하였으나 지난 '01년 3월부터는 전 장교 및 부사관까지 조회 대상을 확대 운영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 초기단계이고 예비역과의 연락체계가 미흡하여 최신자료 확보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최신자료를 획득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여러분께서는 공군 "전역자조회" 사이트 이용 도중 게재된 내용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께 전화를 통해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정확한 자료관리를 위해서는 예비역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의 동료 및 선·후배들에게 공군 전역자조회 사이트를 홍보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 및 신상변동자료 수정절차는

- ▲ 조 회 : "제대군인지원" → "전역자조회" 클릭 후 → 신분, 기수, 성명 입력
- ▲ 수 정 : 상단의 "개인자료수정"을 클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본인확인) 후 수정

\* 연락처 : ☎ (02)506-1194~5, (042)552-1194~5  
인터넷 : <http://www.airforce.go.kr>  
(제대군인지원 → 전역자조회)

# 여비행사 박경원

한국 여류비행사의 선구자로는 중국 운남 비행학교를 나온 권기욱을 꼽는다. 중국공군에서 활약하면서 일본 본토에 폭탄을 퍼붓겠다는 포부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광복 후 귀국, 국방분야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국으로의 비행방문으로 민족에 자부심을 심어주었던 안창남에게 자국을 받아 일본 다치카와 비행학교를 나온 박경원(朴敬元)이란 아가씨가 있었다.

민족차별을 하면 주먹으로 대들곤했다던 여장부, 그녀의 꿈은 안창남처럼 애기(愛機)를 몰고 고국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이 고국 방문을 위한 비행기 등의 주선을 도와준 이가 당시 체신대신이던 고이즈미 마사지로로 지금 일본 새 총리로 각광받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할아버지라는 한 젊은 학자의 추적발굴이 보도되었다.

그에 의하면, 체신대신이던 그가 젊은 여류 비행사들을 초청, 오찬을 베푸는 데서 박경원이 고국 비행에 필요한 비행기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했고, 선뜻 육군 비행학교로부터 비행기를 내주도록 했으며, 그 후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 신문가십란에도 오르곤 했다. 그녀의 그 얘기인 청연호(靑燕

號)를 타고 떠났다가 이즈의 현악(玄岳)에서 난기류에 말려 추락했는데, 조종석에서 삼반신을 앞으로 드리우고 숨졌다. 숨진지 1년 후에 그녀가 쓰던 낙담고에서 그 전후의 일기가 발견되어 당시 '삼천리' 잡지에 실렸다.

그것을 보면 1924년부터 33년까지 8년 동안 그녀의 총 비행시간은 233시간으로 100시간 이하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비행비를 대고 있었다. 대망의 고국 비행을 두고 후원자가 없음을 개탄하는 대목도 보이며, 경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누누이 언급하고 있다. 그 와중에 후원자로 F씨라는 사나이가 등장한다. 공개된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는 젊어 보인 이 F씨와 만난 다음 '이로써 준비는 다 되었다. 이제는 날 수 있다. 한 장의 소절수(小切手, 수표)를 쥐고서 혼자서 관인과의 같이 부르짖었다. 고 일기에 썼다. 결정적 도움을 준 분이 F씨인 것만은 분명하나 F씨가 고이즈마씨인지 여부는 그 보도된 일기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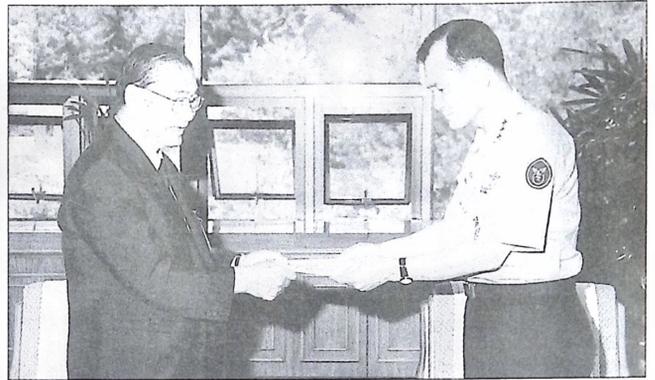
이 박경원의 꿈을 계승, 추모비행을 하겠다고 나선 여류 비행사가 바로 이정희(李貞喜)로 광복 후 여자항공부대장으로 활약했으니 여비행사 삼총사가 아닐 수 없다.

- 편집실 -

# 공사 교육진흥재단에 후원금 기탁하다

지난 6월 1일 공사 1기회 회장인 김영환(예 공군 소장)은 공사 교장을 방문하고 지난 5월 17일 졸업/입관 50주년 행사를 분에 넘치도록 성대하게 치뤘는데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교육진흥재단에 후원금으로 금일봉을 동기의 이름

으로 기탁했다. 이는 2기, 3기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전 후배들의 귀감이며, 구상 나무단지의 꿈을 심은 것에 이어 아름다운 전통 하나를 이룩한 셈이 됐다.



# 會 員 動 靜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기수	성명	주 소	전화번호
1	전영성	서울시 강서구 동흥3동 동성(아) 103-1404	3662-2059
4	조옥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1090 후곡마을 현대(아) 1807-403	031-916-2160
6	김양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739 백마마을 삼환(아) 212-1003	031-907-5402
6	김원근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96-1 감림그린빌라 다동 B-102	584-4827
8	강영진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삼호(아) 104-206	813-9108
8	김종석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53 현대2차(아) 205-1504	713-1598
9	고은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8 정든마을 우성(아) 609-1601	031-714-2747
13	이원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2번지 서광(아) 102-1503	541-5837
16	김희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리 90 성동마을 LG빌리지 2차 206-307	031-266-6773
17	유현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큰마을 현대(아) 109-1402	031-917-3619
17	이창민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174-1 명장 SKA(아) 116-603	
21	최천락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 122 동암마을 주공(아) 311-104	031-857-3224
25	장희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삼현리 금호(아) 252-303	031-304-8696

## 화 혼

♥ 강재학(공사8기)의 장남 형석(군) : 5월 20일

\* 자녀 결혼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전보 및 회보에 게재하여 다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동기생의 주소로 청첩장 우송도 대행해 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

## 부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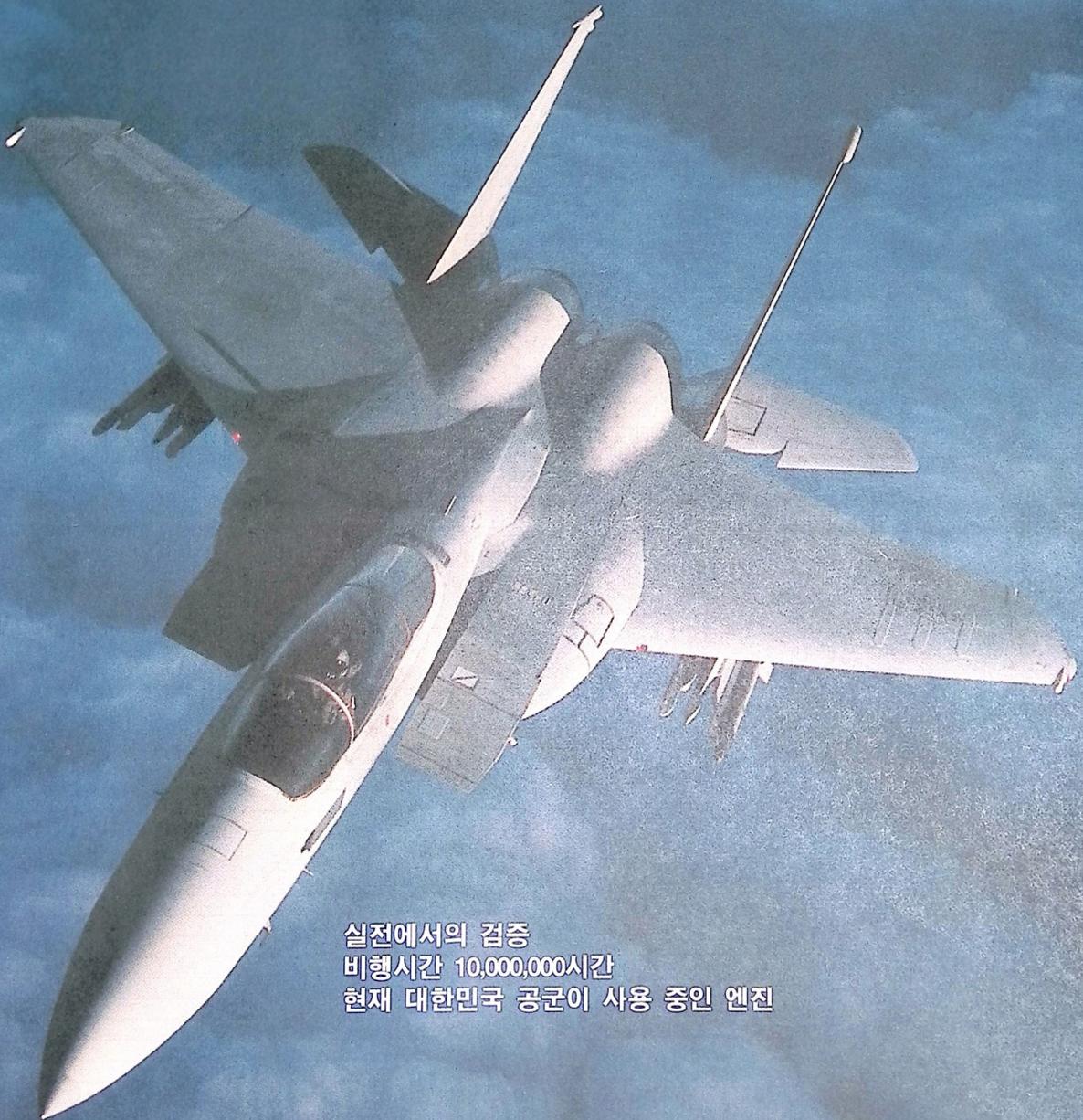
- ① 김태철(공사2기) 별세, 분당장례식장 : 5월 13일
- ① 김일철(공사13기) 별세, 보훈병원 : 5월 8일
- ① 송영섭(공사13기) 별세, 서울중앙병원 : 4월 26일 안치
- ① 김두식(공사16기) 별세, 고대부속안양병원 : 4월 8일

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①

# 平生會費 納付者 名單 (01. 5. 31. 現在)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	납 부 자 명 단
1	36	36	100	★★★★★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80	80	100	★★★★★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83	48	58	고승만, 고재원, 공사연, 김경복, 김규홍, 김동호, 김병기, 김삼용, 김성하, 김인기, 김진섭, 김진환, 박석연, 박영호, 박형주, 백낙승, 백정석, 손철영, 심장섭, 소명옥, 손호인, 양택재, 엄용식, 윤경환, 윤배옥, 윤봉섭, 이경영, 이만섭, 이명완, 이상운, 이상복, 이원재, 이인행, 이종학, 이필원, 이학수, 이형복, 장동준, 전복규, 전승우, 정규혁, 정진섭, 조박연, 조봉연, 조소하, 지경근, 최동호, 최항기
4	65	38	58	구자춘, 김석용, 김용주, 김환중, 박승준, 박예제, 박오화, 박용진, 박재진, 박차식, 서동열, 신동만, 안우일, 양승문, 오수근, 유동천, 이재식, 이순요, 이시우, 이조환, 장남춘, 장무익, 정구현, 정나영, 정봉규, 정봉원, 정연봉, 정진모, 조경래, 조봉구, 조옥찬, 최세천, 최준식, 한영규, 홍사학, 홍의태, 홍재학, 황규복
5	105	59	57	강원신, 고경달, 권오인, 김종인, 김상근, 김성일, 김용범, 김윤배, 김희년, 김홍규, 나병순, 문창수, 박병구, 박석환, 박성환, 박용직, 박용태, 박종희, 박종식, 박항배, 배경태, 백수현, 성보경, 손경희, 손민희, 신봉림, 손정희, 송용근, 안석기, 양영직, 여태연, 유철중, 윤춘현, 이봉식, 이병지, 이수진, 이운모, 이필순, 이원철, 이준수, 이춘일, 임달화, 임파용, 장기현, 장재범, 정명수, 정병주, 정봉수, 정순갑, 정재식, 차순도, 최찬정, 최필순, 한정근, 한필순, 함태상, 허광선, 황교찬
6	48	48	100	★★★★★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7	59	62	105	★★★★★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53	53	100	★★★★★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9	45	31	69	강민수, 고은택, 고인규, 권덕환, 김광순, 김명수, 김성태, 김 업, 남무용, 문영복, 민대식, 박종권, 백봉중, 서용택, 서철수, 이강홍, 이기봉, 이재용, 이준호, 이영락, 이응재, 이한호, 신도범, 임병선, 정원호, 채기권, 천왕봉, 최일영, 한광희, 한동열, 함중우
10	49	44	90	김우훈, 권영락, 김광영, 김병태, 김상해, 김순호, 김시호, 김원수, 김용재, 김운주, 김종선, 김재달, 김태석, 김한용, 김홍래, 문석근, 박근영, 박복찬, 백대선, 백승용, 서지근, 신종재, 성수환, 송중호, 송철수, 송정수, 이달화, 이두훈, 이병태, 이봉중, 이수갑, 이수길, 이영우, 이은봉, 이창호, 이재범, 이현재, 임숙옥, 장종길, 최원철, 한정복, 홍동식, 홍성무, 황봉석
11	50	52	104	★★★★★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2	42	34	83	강영식, 김규림, 김문수, 김영식, 김영용, 김원인, 김태규, 나광수, 남봉현, 민창식, 박덕희, 박상철, 박원규, 박창길, 박춘택, 배기춘, 배양일, 백광현, 신동운, 심재운, 안봉열, 우대식, 우정수, 이명환, 이상경, 이상순, 이종득, 이종양, 이홍우, 전대우, 정민남, 정판중, 최대식, 홍종건
13	52	34	65	권희분, 강신해, 고병훈, 곽갑순, 김양수, 김영부, 김종식, 김진삼, 김진석, 김준언, 문기철, 민양식, 손덕규, 안병하, 안병철, 유근우, 유병각, 유재민, 이기현, 이병길, 이승태, 이정호, 이종태, 이종화, 이태규, 이화관, 장덕수, 정해성, 지창수, 조건환, 최길용, 최인일, 최종덕, 태종민
14	50	50	100	★★★★★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5	50	27	54	권기동, 김대욱, 김덕훈, 김석호, 김성덕, 김주식, 김평량, 명정수, 박득규, 박영남, 박오상, 박종길, 배양용, 손영철, 신길수, 안우공, 양승록, 엄익준, 오상현, 이강섭, 이길환, 이호재, 임용원, 조국연, 최광섭, 최성렬, 최용관
16	55	26	45	김철수, 김문기, 김성구, 김신홍, 김의림, 김정갑, 김현석, 박성규, 박경용, 박영훈, 배정영, 백동기, 서효창, 오창모, 이선기, 이성우, 이수용, 이재기, 장진수, 임정민, 전광남, 정해창, 주창성, 최동철, 최명상, 최양용
17	60	31	52	김희간, 고영섭, 고종무, 김상재, 김석우, 김운태, 김승수, 김익창, 김재수, 김종현, 김준수, 박용택, 배중수, 서정운, 안광수, 어수연, 유성열, 유정용, 윤병인, 이규대, 이문호, 이성용, 이한호, 이철희, 전영배, 장삼용, 장오규, 차옥환, 한형택, 황창번
18	71	39	55	곽조휘, 강재필, 고정훈, 구세환, 구정희, 곽은용, 김두연, 김성진, 김종식, 김재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곤, 김현규, 류효열, 신명호, 성현수, 손인익, 송희진, 신표근, 최이용, 오병환, 오관중, 이기택, 이봉길, 이사회, 이영준, 이정욱, 이진화,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전영훈, 정원태, 최석상, 최태호, 전기광, 허 한
19	44	22	50	김덕실, 김명림, 김영철, 김진진, 박 열,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유병구, 유병권, 윤정재, 이규신, 이강욱, 이계오, 이규찬, 이달호, 이성용, 이영순, 이인형, 정성진, 지광식, 하석태
20	107	12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손준영, 이정학, 이영원, 장성문, 조태연, 차종권, 한광성, 한길성, 허인욱
21	97	14		금지연, 공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영락, 김태욱, 명철원, 박경석, 성봉환, 송동근, 이수남, 정용운, 조오연, 홍충백
22	96	14		강수준, 김은기, 남백우, 손중열, 윤여동, 이광희, 이경환,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장현섭, 홍재근, 최병운, 최승열
23	109	6		김수환, 이은수, 윤차영, 박종철, 장석원, 정경모
24	130	12		공윤석, 신진섭, 송기백, 안창수, 안빈용, 염경식, 이원중, 이영중, 이재강, 전남재, 주신호, 최중용
25	124	13		구도권, 김진태, 김중홍, 김정렬, 류홍규, 박우성, 박훈한, 손명환, 임우규, 윤양로, 윤용현, 이성재, 최승규
26	123	1		최병화
27	125	8		고덕규,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창권, 손태용, 최동환, 홍성은
28	122	2		신영덕, 최상일
29	141	28		김경호, 김석중, 김성진, 김영권,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홍렬, 박성기, 백승욱, 송합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근, 오영봉, 오한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30	151	6		강성호, 김원규, 김용환, 김진안, 장덕진, 채종묵
31	166	1		조완기
32	168	0		
33	173	3		유준중, 이재홍, 정희주
34	167	2		안상철, 정찬영
35	252	0		
36	256	2		김응문, 박홍식
37	252	0		
38	232	0		
39	222	0		
40	243	0		
41	242	1		김민호
42	277	0		
43	271	0		
44	211	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211	0		
46	230	0		
47	201	0		
48	193	103	53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보근, 구병원, 금규태, 길태원, 김갑주, 김경민, 김번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승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연,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환,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여,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영, 박한민, 박희수, 사재현, 소명섭, 손성진, 송영관,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합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우강, 이상준, 이석연, 임수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중, 이태승, 이영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오,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합		1,046		※ 2월 20일에 지로용지 납입하신 분 중 성과와 기타 사항을 기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F-15전투기에 P&W 엔진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F-15기에서 검증된 유일한 엔진"**



실전에서의 검증  
비행시간 10,000,000시간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 중인 엔진



F-15전투기를 운용하는 모든 나라는 Pratt & Whitney의 엔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P&W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Pratt & Whitney = 완벽한 준비 태세



www.pratt-whitney.com